

2000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기 스코틀랜드 장로 정치론에 미친  
칼빈의 신학적 영향 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허 찬

초기 스코틀랜드 장로 정치론에 미친  
칼빈의 신학적 영향 연구

指導 김 영 규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0년 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허 찬

허 찬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은선 印 Sem

審査委員 김성복 印 S.B.K.

審査委員 이은재 印 Eunjae

審査委員 김영기 印 Young-gyu Kim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년 12 월

## 감사의 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

본 논문을 친절히 지도해 주셨고 개혁주의 신학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김영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함으로 3년간 개혁신학을 꾸준히 가르쳐주신 김성봉 원장님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고 자상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은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개혁신학을 공부할 때 혼란스런 저에게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 마음교회 신원균 목사님과 늘 편안한 동역자들인 개혁주의 신학자 계보연구 모임 여러분들(김종인, 박진택, 이광호, 이상철, 김지훈)과 1년 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공부하며 많은 것을 배운 조직신학회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신반포중앙교회 여러분들과 가장 소중한 동역자 김지훈 전도사님의 따뜻한 격려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시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아버지 허만철 집사님과 늘 새벽마다 부족한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 백재원 권사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2001년 1월 15일

허 찬

# 차 례

I. 서론	
A.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	1
B. 선행연구 .....	2
C. 연구방법 과 범위 .....	3
II. 칼빈의 직임론이 갖는 신학사상	
A. 칼빈의 직임론에 있어서 소명에 관하여 .....	5
B. 칼빈의 문헌에 나타난 4중직제 .....	6
1. 목사 .....	6
a. 기독교강요(1559)	
b. 제네바 교회규정(1541)	
c. 주석	
2. 교사 .....	11
a. 기독교강요(1559)	
b. 제네바 교회규정(1541)	
c. 주석	
3. 장로 .....	13
a. 기독교강요(1559)	
b. 제네바 교회규정(1541)	
c. 주석	
4. 집사 .....	14
a. 기독교강요(1559)	
b. 제네바 교회규정(1541)	
c. 주석	
5. 교회조직과 정치에 대하여 .....	17
a. 프랑스신앙고백	
b.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표현들	
C.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칼빈의 견해 .....	21
D. 칼빈의 견해 요약 .....	26

III. 칼빈이 초기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미친 영향	
A. 칼빈과 낙스	28
1. 낙스의 생애	28
2. 제네바에서의 칼빈과 영향	29
B. 존낙스와 스코틀랜드교회의 성립	30
C. 스코틀랜드교회의 정치규정들	31
1. 제1치리서	31
a. 제1치리서의 직제들	
b. 제1치리서의 교회회의들	
c. 제1치리서의 구조	
2. 제2치리서	37
a. 제2치리서의 직제들	
b. 제2치리서의 교회회의들	
c. 제2치리서가 제1치리서에 비해 보완된 점	
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42
a. 제16조 교회에 관하여	
b. 제20조 총회와 그 힘과 권위 및 총회의 소집의 이유에 관하여	
4. 낙스와 스코틀랜드에 미친 칼빈의 영향	45
IV.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나타난 칼빈의 신학사상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	47
1.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하여	47
2. 참가자들	48
B.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미친 칼빈의 영향	49
1.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49
2. 제30장 교회의 치리에 관하여	50
2. 제31장 총회와 노회에 관하여	52
C. 웨스트민스터회의에서 결정된 정치모범에 대하여	54
D. 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에 미친 칼빈의 영향	56
V. 결론	58
※ 참고문헌	61

# I. 서론

## A. 연구의 동기와 필요성

정통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의 상태에서부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의 상태로 부르신 택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로서의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회집”이라고 정의하였다.<sup>1)</sup>

그런 신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경우 정치는 필수적이다. 성전에 목수가 있고, 밭에 씨뿌리는 자가 있으며 양떼에 목자가 있고 몸에는 머리가 있으며,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왕국에는 왕이 있듯이 교회 역시 그것을 경영하고, 인도하며, 돌보고, 보호하는 어떤 권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가 친히 교회의 왕이 되시며, 그가 자신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에 의해 모으시고 다스리시며 구원된 자들을 보존하신다.<sup>2)</sup>

그렇게 중요한 교회정치는 쾰빙글리를 필두로 시작된 개혁주의 신학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개혁의 부분이었다.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시대와 스코틀랜드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로 이어지면서 그 맥을 이어가는 장로교 정치의 그 초기 흐름은 세계 최다(最多)의 장로교회의 나라인 한국에 어떻게 심어져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의 장로교회 정치에 대한 인식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한 대형 장로교단 총회의 목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결과 그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sup>3)</sup>

---

1) H.Heidegger, *Corpus Theologae Christianae*, Tiguri 1732, p507

재인용. 김영규, "교회론과 종말론", (안양신대원 강의안, 2000), p5

2) 김영규, 김성봉, 조병수 共著,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 보수주의 뿌리」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서울:개혁주의성경연구소, 1999), p207

3) 이 조사는 1996년 9월 제81회 예장총회가 총회 시 발표한 산하 5,623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담임목사 및 부목사)들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했다. 설문문의 문항수는 직분, 연령, 시무기간 등을 묻는 일반사항 총 10문항 당회에 대한 의식, 목회자 스스로에 대한 의식, 장로에 대한 의식, 현행 장로교 정치에 대한 만족도, 장로교의 미래 상황 등을 묻는 특수질문 등 총 28문항으로 하였다. 질문① 목사안수 후 장로교 신학, 정치구조, 본질 등에 관한 배움을 가진 적이 있는가?

**답 : 있다 44%, 없다 44%, 기타 12%**

질문②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교의 본질과 교리에 대하여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런 현금의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초기 장로교의 정신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주장과 생각들을 되짚어 보고 그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점들을 다시금 연구해보는 일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인 박윤선 목사는 헌법주석 서문에서 말하기를 장로교 정치의 정신은 한 마디로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sup>4)</sup>고 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오늘의 교회에서 무시되며, 교회 내의 대부분의 일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참다운 개혁신학의 정신을 찾아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 오늘 날 초기장로정치에 대한 시작점으로 돌아가 칼빈의 사상과 그 핵심들이 어떻게 후대에 전달되며 변화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무엇이 장로정치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어 장로교회가 탄생했는지를 바르게 정립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는 중요하다.

## B. 선행연구

본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주제의 대부분은 역사신학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져 왔고, 1차 자료에 의지한 문헌중심의 연구보다는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칼빈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 오토 베버는 그의 저서 “칼빈의 교회관”에서 말하기를 칼빈의 교회는 직분을 중심한 교회(Amtskirche)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칼빈은 이를 부처에게 배운 것<sup>5)</sup>이라고 하였다.

국내에서의 연구는 홍치모 교수가 S, Reid의 글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이 견해들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 연구들은 역사적 사건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고 칼빈과 낙

---

**답 : 있다 16%, 없다 84%**

질문③주변에서 목회자나 장로에 대한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답: 들어본 적이 있다 82%, 아니오 18%**

질문 ④ 21세기 미래사회 속에서 장로교 정치제도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하는가?

**답 : 아니다 68%, 바람직하다 30%, 기타 2%**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 "한국장로교 정치제도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목회와 신학」, (두란노, 1997년 8월호), p123

4)박윤선, 「헌법주석」(영음사, 1983), p8

5)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풍만, 1995), p67



스의 함께한 시간들을 중심으로 하여 칼빈은 냉철한 사상가로 나스는 환경에 의해 변모된 급진적인 혁명가로 묘사하고 있다.<sup>6)</sup>

그렇게 칼빈의 영향을 받은 나스의 연구는 국내에서는 미비한 상태이다. 1차 자료로서 국내에서 번역된 글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뿐이다.

한편 교회에 대한 직제의 연구는 교회연합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도 그 연구가 진행중이다. 장신대의 이형기 교수는 칼빈의 개혁전통의 직제론을 연구하여 장로교의 직제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려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이 전통의 좋은 점은 살리되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서 모든 것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sup>7)</sup>

이러한 시도들이 있고 여러 부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역사 신학적 시도 뿐이다. 또한 매년 비슷한 주제의 논문들이 타 신학대학원에서 연구되었으나 거의 2차 자료에 의존한 작업들이었다.

### C.연구의 방법과 범위

초기장로교회의 정치와 직제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준 칼빈(John Calvin)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칼빈의 중요한 문헌들인 기독교강요(1559), 제네바교회규정(1541), 성경주석들, 설교문, 프랑스신앙고백(1559)에서 어떻게 그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하였는가? 그의 강조점은 무엇이었나? 이 문헌들에서 강조되는 주요 부분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그 맥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뒤이어 스코틀랜드 교회의 개혁과 존 나스(John Knox)가 작성한 제1치리서와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이 작성한 제2치리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어떤 정신 아래 쓰여졌는가? 또한 그들의 뒤를 이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총회의 교회관과 교회정치는 무엇을 중점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개혁자 칼빈의 영향은 어떤 것인가? 칼빈의 후대들이 맺었던 귀중한 개혁의

6)홍치모, 「칼빈과 나스」, (성광문화사, 1991), p160

7) 오늘 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제문제에 관한 교회 분열문제를 막고, 가능하면 에큐메니칼 직제론에 입각하여 교파들 상호간에 상대방의 직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효과를 ...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14

열매들은 무엇인가?

칼빈에 대하여 다시 소개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오늘 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도대체 그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게 많은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칼빈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는 종교개혁의 집대성자요, 개혁신학의 큰 스승이며 17세기 유럽에 꽃을 피웠던 개혁신학의 시작점이다.

이러한 칼빈의 신학이 장로교 초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칼빈의 신학은 바로 “교회를 유익 되게 하는 신학”이었다.<sup>8)</sup> 그런 칼빈의 정신을 계승하며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느냐가 이 문제에 대한 최대의 문제점이며 현시대의 신학의 문제가 아닐까? 오늘 날 많은 신학의 논의들이 칼빈을 인용하나 그의 핵심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먼저 칼빈의 바른 견해를 정리하고, 후대의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칼빈으로부터 나스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게로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후대의 우리들이 찾아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

8) 김성봉,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교회와 문화」 제4호, 한국성경신학회 역음, (하나, 2000), p81

## II. 칼빈의 직임론이 갖는 신학사상

### A. 칼빈의 직임론에 있어서 소명에 관하여

칼빈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분이 보이는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26:11) 그는 사람들의 봉사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리실 것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는 마치 노동자가 일을 할 때에 연장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9)</sup>라고 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칼빈은 교회에서의 직임이 권한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는 직분(직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섬김 또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교회의 질서의 이러한 “기능개념”은 각 지체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결속, 증진된다고 보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이런 귀중한 직분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겨져서는 안된다. 어떤 이들은 전적으로 무지(無知)중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실 자연적인 순서로는 그 은사가 실제적인 직무를 맡는 것보다 먼저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11)</sup>

교회를 다스리며 돌보는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법에 자기가 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자신이 부름 받은 교회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함부로 떠나서는 안되며,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 결정이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특별히 유의하였고,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되려면 먼저 합당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아야 하고 (히5:4), 다음에 이 소명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였다.

9) Inst. IV.3.1

10) Philip C. Holtrop, 「기독교강요 연구해드북」, 박희석·이길상 共譯,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pp334-336

11) 「칼빈성경주석」 (성서교재사, 1995), 고린도전서12장28절

## B. 칼빈의 문헌에 나타난 4중직제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서로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강요이다. 이중 최종판(1559)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덧붙여 제네바 교회규정(1541)과 그의 성경주석의 직제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4중직제에 맞추어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의 설교집과 프랑스 신앙고백서도 참조하였다.

### 1. 목 사

#### a. 기독교강요(1559)

칼빈은 특별히 교회의 직임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sup>12)</sup>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성령과 의와 영생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sup>13)</sup>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 IV권, 3장 부분에서 에베소서4:11 이후에 드러난 직분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다른 직분에 비하여 더 중요하므로 앞부분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목사의 직임은 가르치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다.<sup>14)</sup>”라고 규정하였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목사는 절대로 무위도식하거나 게으른 자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진리의 파수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가르치는 이의 태만으로 어떤 사람들이 무지로 멸망한다면 “그 피값을 네손에서 찾을 것”(겔3:17)이라고 한다.

또한 목사는 무엇보다 자기 교회를 가장 우선하여 섬겨야 하며, 때때로 분란이나 조언을 구할 일이 생김으로 다른 교회를 돌아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각각 자기의 영역에 만족하며 교회 이외의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만일 목회자가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일이 생길 때,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하다 스스로 생

---

12) Inst. IV.3.3

이 직분들 중에 특히 복음 선포의 직책은 특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이 성도들 사이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으며 심지어 가장 훌륭한 일로 인정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13) Inst. IV.3.3

14) Inst. IV.3.6

우리는 목사의 직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며, 성례를 집행한다는 두가지 특별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이 되더라도 공적인 인정을 기다려야 하며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sup>15)</sup>

#### b. 제네바 교회규정(1541)<sup>16)</sup>

성경이 때때로 장로, 사도라고 부르는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타이르고, 공적 혹은 사적으로 견책하며, 성례를 행하고, 장로,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의 우애를 나누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혼란을 야기치 않기 위하여 누구도 소명 없이 이 직분을 맡아서는 안되며, 이 일에 대하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첫째는 시험<sup>17)</sup>, 둘째는 성직제도에 관한 것이며, 셋째로 성직을 수여하는 의식과 절차에 관한 것<sup>18)</sup>이다.

특히 칼빈은 목사가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 하거나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목사들이 자주 그들의 상태를 점검 받아야 하며<sup>19)</sup>, 목회자들의 삶이 교인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목회자가 먼저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있지 못하면 그들의 회중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자

---

15) Inst. IV.3.7

16) Lewis W. Spitz, 「종교개혁의 정신」, 정현철 譯, (풍만, 1990), pp196~

17) 시험 :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리에 관한 것이다. 즉 성직 후보자가 성경에 관하여 옳고 경건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가 사람들에게 말씀 전달하기에 적절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잘못된 후보를 선택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게 교회가 승인한 교리를 인정하고 옹호함을 공언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 후보자가 가르치기에 적절한 인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를 심문해 보거나 그를 사적으로 주님의 교리를 토론해 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시험은 생활에 관한 것이다. 그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욕먹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18) 성경의 유일한 예인 초대교회의 규율에 따르면, 먼저 사도들이 성직을 맡은 이를 세우고 그를 공회에 보낸다. 그래서 그가 성직을 맡기에 타당하다고 공회가 판단하면, 그를 받아들여 승인한다. 그러나 그가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뽑는 절차가 필요하다. 후보자를 세우는 방법으로는 손을 얹어 안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다.

또한 그들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모든 성직자들이 일정한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주 일정한 날 모여 성경을 논의하는 것이 편리한 것이다.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 회합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태만한 자에게는 경고를 발하여야 할 것이다.

19) 벽지에서 사역하는 이들은 가능한 자주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한 달간 참석치 않는다면 이는 매우 태만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 때 차이가 나는 교리가 있다면 성직자들로 하여금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게 하여야 한다.

떠돌아 다니는 모든 추문들을 일소하기 위하여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야만 성직이 존경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성직자에게 있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sup>20)</sup>가 따로 있고, 형제가 직접 훈계함으로 바로 잡혀질 수 있는 잘못<sup>21)</sup>이 있다. 전혀 용납될 수 없는 죄의 경우에 고발이 있다면 교역자들과 장로들의 회가 이를 잘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단한 훈계에 의해 고쳐질 수 있는 심하지 않은 죄의 경우에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를 다루어야 한다. 결국 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수정할 문제가 있는지, 그들끼리 논의할 문제가 있는지를 석달마다 특별히 점검해 보아야 했었다.

### c. 주석

#### (1) 디모데전서 3:1~7

##### 1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여자들이 이 직분을 받는 것을 금하였고, 남자라도 무분별하게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일은 아무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님을 확증하고 있으며, 이는 귀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구별된 탁월성을 요하고 있다. 또한 이 직분을 맡기를 소원하는 자는 자신이 그런 중대한 짐을 감당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세밀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다스리는 중대한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것(*sustinere personam Filii Dei*)은 결코 가벼운 일일 수 없는 것이었다.

#####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

20) 용납될 수 없는 죄는 이단, 분파, 교권에 대한 반역, 공개적인 신성모독, 사회의 처벌을 당하는 것, 성직매매, 성직 추천의 부패,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모, 법의 허락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교회를 떠나는 것, 표리부동, 위증, 방탕, 절도, 술취함, 법의 처벌을 받을 폭행, 고리대금, 법이 금하는 추잡한 놀이, 춤, 음란, 시민권을 손상시키는 죄,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등이다

21) 훈계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죄는 소문에 근거하여 성경을 이상하게 다루는 것, 헛된 문제에 호기심을 보이는 것,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교리나 의식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 성경을 읽고 연구함에 게으른 것, 아침하는 악을 꾸짖지 않는 것, 자신의 직책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게으른 것, 상스러운 것, 거짓말, 비방, 음란한 말, 욕설, 무모함, 악한 생각, 탐욕, 대단히 인색한 것, 성급하게 화내는 것, 다루는 것, 논쟁, 행동이나 태도의 방자함 등 성직자에게 부적절한 행동들이다.

감독들의 권위가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선발 받은 자들은 선하고도 존귀한 평판을 받으며, 두드러진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열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감독은 심오한 학문에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거기에는 가르치는 재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 4-5절 자기집을 잘 다스려...

감독은 훌륭하고 능숙한 가장이어야 한다.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잘 다스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 당시 탁월한 능력과 학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직후에 감독으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까닭은 그런 개종자들은 대개 허영심이 많아서 오만과 야심에 곧장 휩쓸리기가 쉽다고 본 것이다. 새신자들은 담대하고 성급할 뿐만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날 수 있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자만으로 들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들의 기고만장한 생각들이 억제될 때까지 그들을 감독직에서 제외해야 한다.

####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는 감독의 외적인 행동에 관한 불신자들까지도 그가 착한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한다. 그들의 (외인들의) 사회에서 영예롭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 (2)디도서 1장 9절<sup>22)</sup>

디도서 1장 주석에서 역시 칼빈은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지만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모든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커가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바울은 교회가 말씀위에 바르게 서있기를 바랐으며, 이는 교회를

22) Calvin, 「칼빈성경주석」(성서교재사, 1993)

세우는 데에 교의(敎義)다음으로 중요한 일”로 보았다.

교회의 영적인 건축에 있어서 교회의 통치를 맡아볼 목사들을 임명하는 것이 교의(敎義) 다음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목사들의 사역 없이 교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의 사람이 모인 곳에는 목사를 세워야 마땅하다. 이는 어느 성읍이든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미쁜 말씀의**

이는 특히 감독, 즉 가르치도록 선택받은 자에게 제일가는 자질이다. 교회는 말씀이 아니고서 다른 무엇으로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색다른 가르침에 쉽사리 휩싸이고 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휘말릴 경우 진리를 포기하고 만다.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할 목사가 이런 모습의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에 능통할 것이요, 그 가르치는 방법에서도 덕을 세우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 말은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울은 경건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가르침'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롬 12:7)에 언급하고 있다. 곧 가르치는 자는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목사의 첫 번째 임무가 건전한 교의에 대한 지식에 능통하는 것이요, 둘째 임무는 그의 고백을 불굴의 용기로 고수하는 것이며, 셋째 임무는 그의 가르침의 방법을 덕을 세우는데 맞추는 것이다. 곧 야심적인 마음에서 쓸데없이 호기심을 돋구는 괴상한 가르침을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확고한 혜택을 추구하는 것이다.

###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에게는 두가지 음성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양을 모으는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쫓는 음성이 그것이다. 성경은 두가지 일을 다 할수 있는 방법을 목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운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들도 다스리고, 진리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두가지의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감독은 올바른 신앙을 고수할 때에 비로소 현명한 것이요, 그의 지식을 교우들의 건덕(健德)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때에 그는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 2.교 사

### a. 기독교강요(1559)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을 일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교사들의 지배를 받기 원하신다.<sup>23)</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이다.<sup>24)</sup>

칼빈은 교사직과 목사직을 차별화하였다. 그들 사이에 다음의 차이가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은 제자훈련이나, 성례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을 맡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았다.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한다.<sup>25)</sup> 이는 칼빈이 교사의 직임을 중시함과 교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 b. 제네바 교회규정(1541)

특별히 이 문헌에서도 가르치는 이인 교사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어 있다.

“교사에게 부여된 직무는 신자들을 참된 교리로 가르쳐 복음의 순수함이 무지나 악한 생각으로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칭(오늘날에도 통용되듯)에 하나님의 교리를 보존하고, 감독과 목사들의 잘못으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고, 이를 돕는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다 쉬운 말로 표현해 우리는 이를 교육하는 직분이라 부른다.”<sup>26)</sup>

---

23) Inst.IV.1.5

24) Ibid.

25) Inst.IV.3.4

26)①성직자와 아주 유사하고 교회 정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가 신학교사라 할 수 있다. 이 신학교사는 구약교사, 신약교사 각 한명씩 있는게 좋다.

②어학과 인문학을 가르치는 강의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다가올 세대를 위한 후세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들을 행정가가 되고 교역자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③먼저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과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람들을 기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필요하다. 또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박식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c. 주석

(1)디도서 1장 5절<sup>27)</sup>

**내가 너(디도)를 그레데에 떨어 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5:17에 보면 두 종류의 장로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사(*doctores*)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겠다. 곧 가르치도록 임명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자가 장로들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선택을 받은 자나, 요청을 받은 적격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2)고린도전서 12장 28절<sup>28)</sup>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교사의 직무(*officium doctoris*)는 제1급에 속하며, 사도의 직무는 제2급에 속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의 책임이 그에게 맡겨진 교회를 돌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듯하다. 바울은 모든 은사에 대하여 예언을 더 좋아하는데 그것은 예언이 교화의 더 큰 근원되기 때문이다. 이 일은 위로와 격려, 교훈에 전념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은 성경에 관한 탁월한 해설자들이며, 교만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특별한 지혜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적절한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이의 차이점은 교사들의 임무는 종교의 순수성이 교회에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한 교리(*sana dogmata*)를 지키고 널리 전파하는 것이나 선지자는 그 당시의 교회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적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잘 알리는 경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27)Calvin, 「칼빈성경주석」(성서교재사, 1993)

28)Calvin, op. cit.,

칼빈은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경해석”을 말한다. 이는 성경해석의 문제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일에 전담하는 자를 두어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장 로

#### a. 기독교강요(1559)

다스리는 사람들은(고전12:28)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롬12:8) 이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각 교회는 경건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들 중에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직분은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모든 시대에 필요한 직분이다.<sup>29)</sup>

#### b. 제네바 교회규정(1541)

이 직분은 모든 사람의 생활을 감독하는 것이고, 실수를 범하거나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점잖게 훈계하는 것이며, 필요한 곳에 아버지다운 충고를 제시하는 것이다.

장로로는 선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며 욕을 먹지도 의심을 사지도 않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영적 신중함을 지닌 사람이 선출되어야 한다. 또 이들은 모든 사람을 감독할 수 있도록 도시의 각 지역에서 골고루 세워야 한다.<sup>30)</sup>

---

29) Inst.VI.3.8

30) 이들을 가장 잘 세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 교회가 가장 좋게 여겨지는 사람, 가장 적절한 사람을 지명하고 교역자들에게 그들과 대화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나서 200인 교회에 그들을 추천하여 승인을 요청한다.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작성된 형식의 특별서약을 하게 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 군주에게 출두해야 한다. 그들이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한, 이유 없이 자주 그들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 c. 주석

(1)딤편 5:17<sup>31)</sup>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장로가 다 가르치는 일에 임명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명백한 의미는 영예롭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르치는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진지하고 잘 단련된 자들을 선출했으며, 이들은 공동 의회에서 목사들과 함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규율을 내리고 기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감독자로 행동했다.

## 4. 집사

### a. 기독교강요(1559)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집사에게 맡겨졌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12:8)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집사직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었을 것이다.<sup>32)</sup>

첫째로 구제물자를 나누어주는 집사들과, 둘째로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들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의 임명과 직분의 기원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6장에 잘 언급이 되어있다.

### b. 제네바 교회규정(1541)

31)Calvin, 「칼빈성경주석」(성서교재사, 1993)

32)Inst.VI.3.9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집사가 있었다. 하나는 구호금이나 재산, 집세, 연금 등을 가난한 자들을 관리하는 직분이고, 또 하나는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관리하는 직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은 칼빈의 시대에 행정관(procurators)<sup>33)</sup>과 애호가(hospitalers)<sup>34)</sup>로 남아 있게 되었다. 행정관과 애호가를 뽑는 것은 장로를 뽑는 것과 같다. 그들을 세우는 데 있어 바울이 집사를 뽑을 때 제안했던 규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c. 주석

#### (1) 사도행전 6장 1절~6절 <sup>35)</sup>

이 본문에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는 원인은 사람들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한 것은 사람들의 불만이 생겨난 것이 그 때가 좋았으며, 그런 기능의 일이 필요하게 느껴지기 전에 임명되었다면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게을리 그 일에 임했을 것이다. 교회는 수정할 것이 없이 단번에 형성될 수 없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제도가 형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은 그것을 불평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2절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책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이 분주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되자 이를 전담할 자가 필요했

---

33) 오늘 날 구호소를 위해 일하는 행정관의 수는 적절한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별도의 회계 직(reception office)이 있었으면 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다 적절히 예비될 수 있는 것이고, 자선을 베풀려는 사람이 보다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선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또 위에서 배정한 재물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군주는 필요에 따라 조정해서 쓸 것을 명할 수 있다.

급한 일이 일어나서 지연되면 위험하거나 과도한 지출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그들이 꼭 회합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 없이도 한두 명이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다. 공공 구호소가 잘 유지되는가를 성실하게 감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또 도시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spitz,op.cit.,p203

34)애호가들의 집이 존중되기 위해서 교역자들은 군주에게 요청하여 부족함이나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몇몇 행정관들과 함께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석달에 한번씩 구호소를 방문해야 한다.

35)Calvin, 「칼빈성경주석」(성서교재사, 1993)

다.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없게되자 다른 일을 거절하게 된 것이었다.

### 3절 형제들 가운데서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선택된 그들은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자들이었다. 교회 내에서의 합법적인 방법은 교회의 어떠한 공직을 맡게되는 자들을 위해서는 일반의 투표에 의하여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동의와 찬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실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야 상습적인 사기행위와 끊임없이 조작해내는 험담 등을 경계할 수 있다.

### 6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하는 일은 율법 아래서는 성직수임의 엄숙한 상징이었다. 이제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안수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의식 그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되어진다고 본다.

(2)디모데전서 3장 8절~11절<sup>36)</sup>

### 8절 이와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혹자들은 이것을 집에서 일을 돌보는 집사다, 아니면 감독보다 낮은 장로에 대한 것이라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지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특히 그들(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일구이언'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

### 9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종교의 순수한 가르침을 고수하며, 믿음에 있어서 바른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특별히 그들이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면 종종 남을 위로도 하고 충고도 해야 할 것이다.

###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36)Calvin, op.cit.

집사로 선발되는 사람들이 감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정직성이 입증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소문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입증의 과정은 단 시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분별하게 아무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조사를 거쳐 추천받아 선발되어야 한다.

###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감독과 집사들의 아내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의 직무를 도와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경우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이나 집사모두가 한 아내로 만족하며, 정숙하고, 존귀한 가정생활을 보이고 자기의 자녀와 권속을 거룩한 규율 속에 통제하는 것이다.

## 5.교회조직과 교회정치에 관하여

### a. 프랑스 신앙고백<sup>37)</sup> (1559)

#### (1)교회에 대하여

칼빈은 역시 이 고백서에서도 목사의 직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제 25조<sup>38)</sup>에서 설명하는 바 전해지는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곳에서만 교회가 온전

37) 프랑스는 칼빈의 조국이며 그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거기에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서문으로 대신하여 붙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자기 조국의 종교개혁을 간절히 영원하였던 증거이다.

칼빈은 자신의 조국에서 소수파로 박해를 받고 있는 개혁교회를 위하여 신앙고백을 준비하였는데 그것이 이 프랑스 신앙고백이다. 그가 준비한 고백을 그의 제자 산데이우(De Chandieu)가 개편하였고, 이것이 1559년 파리의 노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이며 후계자인 베자(Beza)가 1561년에 이 고백서를 프랑스왕 샬 9세에게 발송하였고 서문은 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리고 1571년 프랑스의 전국 프로테스탄트 총회에서 로셴(Rochelle)에서 모였을 때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강력한 가톨릭 국가중의 하나였으므로 개신교도들은 늘 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러다가 개신교를 인정한 앙리 4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엄숙하게 이 신앙고백을 공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 신앙고백은 칼빈의 신학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16세기에 작성된 유명한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이다.

이장식, 「기독교신조사1」, (컨콜디아사, 1993), p205

38) 제25조.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한 기초 위에 서있음을 확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기반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는 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말씀 전하는 자가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 보내신 자를 가벼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 26조<sup>39)</sup>에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할 것을 부탁하며 참된 교회의 제도가 세워진 곳에서는 어떤 권세도 이에 우선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교회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 28조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신앙고백이 그 말씀에 종속되지 않거나 성례전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없음을 말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로마 교회를 바른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sup>40)</sup>

## (2)교회정치에 대하여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순전한 교훈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바른 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sup>41)</sup>

그리고 그 일을 총괄하게 되는 목사들은 그들 안에서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권위와 평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42)</sup>

---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Ibid, p214

39) 제26조.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유리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공동체)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교회의 참된 제도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또 비록 집정관들과 그들의 법령이 이 제도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Ibid,p214

40) 제28조.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신앙고백이 그 말씀에 종속하지 않거나 또는 성례전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황의 집회들을 정죄하는 까닭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추방되었고 그들의 성례전은 부패되었거나 거짓된 것으로 변했거나 혹은 파괴되었으며 모든 미신과 우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그 세례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된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오염되게 될 것이다. Ibid p215

41) 제29조. 우리는 참된 교회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교회에는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 있는 까닭은 순전한 교훈이 유지되며 악덕이 시정되고 억제되며, 또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함이다. 또 집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거기서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다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Ibid, pp215-216



당시는 교황의 로마교회가 그들의 개인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에 관한 주요한 일들은 선거를 거쳐야 함을 말하고 있다.<sup>43)</sup> 또한 교회 통치가 어느 개인의 횡포에 의해 오염될 것을 염려하여 상호 보완할 것을 지시한다.<sup>44)</sup>

여러 사람의 모임으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와 순전한 교훈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인간으로부터 고안된 발명들과 법들은 배격하고 있다<sup>45)</sup>. 이는 새롭게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 b.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표현들

### (1) 에베소서 4:11-12

칼빈은 그의 에베소서 설교에서 교회를 향한 보다 상세한 표현들을 접할 수 있다. 이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청중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칼빈은 로마교회의 계급적 직임제에 오랫동안 익숙하여진 자들에게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지켜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모든 풍성하심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셨고, 그래서 교회 안의 세워진 질서로 인하여 자신의 선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나눠 주시려 한다. 믿는 자는 아무도 스스로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인차가 있는 지혜의 분량에 대하여 시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sup>46)</sup>

42) 제30조.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단 한 분의 머리, 단 한 분의 군주, 전체교회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일한 권위와 평등한 권세를(동등권) 가지고 있으며... . Ibid, p216

43) 제31조.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권위에 따라 교회의 통치에 간여할 수 없고 다만 가능한 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선거를 통하여 될 수 있다고 믿는다. Ibid, 216

44) 제32조. 우리는 또한 감독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의 관리를 위하여 취할 방법에 대하여 그들이 서로 연구하며,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에서 결단코 떠나서는 안될 것을 믿는다. Ibid 216

45) 제33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구실 아래서 사람들이 도입하여 사람의 양심을 구속하려는 모든 인간의 발명들과 법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Ibid, 216

46) Calvin, 「존칼빈 에베소서 설교 (하)」, 김동현 譯 (솔로몬, 1995), pp11-32

또한 당시에 난무하였던 이단들인 제세레파나 리버틴파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표현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주장은 귀에 솔깃하며 바르게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시한 교회내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곧 말씀을 존중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이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다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에 자신을 굴복시킵시다. 그 질서는 곧 큰 능력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전체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sup>47)</sup>.

칼빈은 여기서 언급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는 자의 직임은 이제는 종결된 것으로 보았으며 현재에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만이 남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케 가르치는 일을, 목사와 교사의 몫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순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인 이들은 그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목사(pastors)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가르치는 평범한 임무를 맡은 말씀의 대리인들입니다. 교사(teachers)들에 대하여는 행 13:1에 나오는 안디옥교회의 예를 통해 보면, 그들의 책임은 언제나 교회 안에 성경에 대한 건전하고, 바른 이해가 있도록 하고 또한 그런 이해가 힘을 얻으며,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 나가게 함으로써 이단과 그릇된 의견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고, 믿는 자들이 모든 것들 위에 굳건하고 확실하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해설하는 것입니다.<sup>48)</sup>

가르치는 직임인 목사와 교사의 직임을 맡은 자는 그 일을 권세로 여겨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행해야 하며, 또한 그 가르침을 듣는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를 시기하여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장소에서 항상 열심을 내어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 지식을 가진 자는 그것으로 자신을 높여서는 안되며, 오히려 스스로 모든 자들에게 빛진 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지식을 소유한 자는 그것을 자신만의 보물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그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마25:20). 나보다 나은 자에게 시기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sup>49)</sup>

47) Ibid, p13

48) Ibid, pp16-17

지금의 시대나 그 때나 교회를 단순히 인간의 집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서슴없이 칼빈은 말한다. 인간은 연약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자들과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말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몸의 근육을 끊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마도 몸을 사랑하는 체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몸의 근육을 끊어버리는 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해체되고 분해된 몸 전체는 기절해 버리고 마침내는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잘 부양해 주십니다. 선지자, 교사, 목사, 전도인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만일 거부한다면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에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연합을 산산히 부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직책에 존경을 바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치명적인 적이며, 혼란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파멸을 불러오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sup>50)</sup>

계속적으로 칼빈은 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한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바른 가르침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의 문헌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대하는 그의 자세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를 찾아볼 수 있다.

### C.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칼빈의 견해

지금까지 칼빈의 직제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1559)와 그의 성경주석, 그리고 제네바 교회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임명받은 위의 모든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논제에서 직임에 대하여 주로 다루었다

49) Ibid, pp21-22

50) Ibid, p30

면 이제 그렇게 임명받은 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생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정리해 본다.

칼빈은 1537년 최초로 출판된 최초의 요리문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점이라고 했다. 이같은 경건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신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며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sup>51)</sup>

이와 같이 경건을 정의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 제3권 6,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나타난 진정한 경건을 “자기부정”으로 보았다. 칼빈은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선한 힘이 내포되어 있어서 인간을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하였다.<sup>52)</sup>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이 율법에 제시된 것과 부합하도록 더욱 명백한 계획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좋게 보셨다. 그 계획의 출발점은 신자의 의무에 대한 것인데, 그의 의무는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롬12:1).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권면이 나온다(롬12:2).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별되며 바치어져,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며 명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가장 강렬한 동기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구속행위에서 얻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생활에서 실현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도록 해야 하는 한편 추악한 죄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된다.<sup>53)</sup>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체득한 사람이 아니면 그와의 친교를 가질 수 없다. 복음은 또한 허의 교리가 아니며, 생명의 교리인 것이다. 복음의 효력은 마음 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51) Calvin, 「칼빈의 경건」, 이형기 편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1986), p25

52) Inst. III.3.6

53) Ibid

는 분투하며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매일 앞으로 중단 없이 전진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분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sup>54)</sup>

그런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지기를 소원하는 자만이 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한다고 할수 있겠다.

칼빈이 언급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들을 기독교 강요(1559) 제3권 7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sup>55)</sup>

#### a.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별되며 바치어져, 금후로는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명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고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자기의 힘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며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떠나는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생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명하시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이다.

#### b.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양심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 c. 디도서 2장에 나타난 자기 부정

디도서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두가지 장애물을 제거했는데 이는 불경건과 세상 욕심이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본성을 버리며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경건은 세상의 불법에서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켜 참으로 거룩하게 만든다.

#### d. 자기 부정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

54) Ibid

55) Inst. III.3.7

이웃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자기의 의무를 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말하자면 자기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아무 성과도 없을 것이며,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바쳐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 가슴속에 일종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뿌리 뽑아버리는 것 밖에 다른 치료법은 없다. 성경의 교훈은 이 전염병을 뽑아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재능있는 자를 높이며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명령이며, 그들에게 결점이 보일때에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관대하고 겸손하게 대하여 할 것이다.

e. 자기부정은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르게 한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전체는 우리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하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벧전4:10).

하물며 인간의 신체 기관도 다른 기관을 위하여 그 능력을 쏟는데, 경건한 사람도 그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우들을 위해 일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 전반적인 성장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이 청지기는 사랑을 그 자격으로 하며 자기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시하게 된다.

f.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의 종류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러러본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대한다는 것은(마5:44)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전연 반대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하여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끌어 안는 일만이 가능하게 한다.

g. 보이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것은 의향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나 그 이외의 주의 일을 할 때에, 말과 행동으로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우선 그들은 자기가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두고 그의 불행을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며

도와야 한다.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h.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정은 그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

인간적인 야심이나 탐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번영하겠다는 욕망이나 희망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안심과 확신을 품고 주께서 주시는 복에 몸을 맡기며 거기서 안식을 얻어야 한다.

i.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의지하라.

항상 주를 우러러보며 주의 지도를 받아, 주께서 정하신 우리의 처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악한 행동, 책략, 간계 그리고 탐욕 등의 수단으로 재물을 움켜잡고 이웃을 해하는 일이 없게 되고 우리의 순진성을 버리게 하지 않는 사업만을 하게 될 것이다.

j. 자기 부정은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준다.

자신을 전적으로 주께 드린 사람만이 자신을 충분히 부정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태연한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자아가 부정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된다. 이것이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안에 사는 자들이 살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초로서 자기부정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는 칼빈의 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한 저항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sup>56)</sup>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직분은 인간의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모습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간의 추한 본성과 죄에 대해 싸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직임을 맡은 자로서의 참된 행동이 되는 것이다.

---

56) 인간의 부패와 악의 힘의 강대함과 그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한 것 이외에는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신앙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초로서 자기부정이란 이미 자기자신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는 말이 된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pp38-39

## D. 칼빈의 견해 요약

칼빈은 로마교회의 기원을 인간적인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는 성경이 제시한 최초의 교회 정치체제는 장로정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감독정치가 등장하였다고 하였다.<sup>57)</sup> 칼빈은 교권주의를 개혁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정치 원리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교회정부형태는 주님께서 원했던 질서라고 하였다. 칼빈의 교회정치사상의 기본요소는 그리스도의 주권, 직무의 분배, 대의정치를 그 골격으로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하는 공동체 혹은 몸이며 모든 지체들은 그 안에서 평등하다. 직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사에 따라 주어지므로 다양한 직분이 있고 온 교회에 주어진다. 직분을 가진 자는 모든 교인에 의해 선출되며 그들은 교인의 대표가 된다. 교회는 전체 교인의 정당한 대표를 내기 위해서 선택된 직분자들, 곧 목사와 장로에 의해 통제, 감독한다.<sup>58)</sup> 따라서 교회헌법규정에 대한 직제의 본질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에 있었다.<sup>59)</sup> 중요한 것은 교회직제의 본질과 그 형태는 그 시대에 나타난 범례가 아니라 역사적인 교회의 전승으로써 성경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았다.<sup>60)</sup>

또한 칼빈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교회에 대한 자율사상이다. 그는 목회자의 청빙이나 교회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당국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의 회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자율사상은 스코틀랜드와 후대의 미국장로교도에 의해 채택되어 장로교 정치원리의 핵심사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sup>61)</sup>

칼빈은 교회평등과 자율만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역설하기도 하였고, 회중과 회중의 대표에 의해 선출되어 다스리는 장로정치를 특별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더구나 노회와 총회와 같은 기관들은 처음부터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논쟁을 해결하

57) 오덕교, op.cit., p81

58) 오덕교, 「장로교회사」(합신출판부, 1997), pp82-83

59) 김득룡, 「개혁파정치신강」(총신출판부, 1992), p343

60) Ibid., p347

61) 오덕교, op.cit., p84



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의 연합은 성경적이었다.

칼빈은 인간들에 의하여 무너진 그리스도의 왕권을 교회에서 회복하므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였고. 그는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권징을 내세웠고, 장로법원을 통하여 '사도시대이후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the most perfect school of christ since the days of the Apostle)를 제네바에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개혁 사상과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요, 예배의 근거요, 교회정치의 틀을 제공한다는 칼빈의 사상은 후대에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전유럽 지역과 멀리로는 미국과 한국 등지에 장로교회의 예배원리는 물론, 교회정치원리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 Ⅲ. 칼빈이 초기 스코틀랜드 교회에 미친 영향

#### A. 칼빈과 낙스

##### 1. 낙스의 생애 62)

존낙스(John Knox)는 1505년경<sup>63)</sup>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경지역인 해딩톤(Haddington)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들은 부유하지 않았으나 그가 사제가 되는 데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낙스는 St. Andrews 대학에 진학하여 존 메이저(John Major)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로마교회의 허구성을 깨닫게 된다. 그 후 1530년 경 신부서품을 받게 된 후, 고향에서 공증인의 일과 지주들(John Cockburn of Ormiston, Hugh Douglas of Longniddly)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지주들과 인간적인 친분을 가지게 된다. 이 시기에 낙스는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를 만남으로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그의 지지자가 되었다.

낙스는 위샤트의 순교 후, 시민운동의 지도자가 되어 St. Andrews를 지키는 수비대를 조직하여 왕실과 교회 당국에 항거하였다. 이 때에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연대하여 이들을 공략하였고, 낙스는 노예로 팔려 19개월 이상 배에서 노를 저어야 했다.

1549년 초반, 낙스 일행은 영국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을 입어 극적으로 석방되어서, 영국에 있는 버위크(Berwick)에서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553년 에드워드 6세의 사망으로, 그의 자매 메리(the Bloody Mary)가 왕위에 올라 개혁자들을 처형하자, 낙스는 영국을 떠나 프랑크푸르트로 피신하게 된다. 그곳에서 영국 피난민들을 위한 목회를 위한 목회를 하였고 거기서 리처드 콕스(Richard Cox)<sup>64)</sup>가 “공동기도서”에 의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을 거부하게 됨으로 이동하여 제네바로 가게 된다.

62) 오덕교, 「종교 개혁사」,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8), p304

63) 존낙스의 출생시기와 장소에 대하여는 역사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낙스가 1505년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D.H.Fleming 교수외 다른 학자들은 1513-15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64) 리처드 콕스(1500~1581)는 케임브리지의 King's College를 졸업한 후, 영국 국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1548년 「성찬규례」를 초안하였고, 1549년과 1552년 「공동기도서」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1547~1552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메리의 등극으로 투옥되었고, 프랑크푸르트로 피신하여 낙스와 영국 피난민교회를 섬겼다. 오덕교, op.cit., p306

## 2.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영향

낙스가 제네바에서 보낸시기(1555-1559)야 말로 낙스의 생애에 있어 그의 사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간들이었다.<sup>65)</sup>

1555년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시기이다. 이 때에 낙스는 제네바에서 칼빈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학문에 전력할 수 있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또한 칼빈과의 교분도 두터워졌으며 칼빈을 만나러 제네바를 방문하는 수많은 개혁 지도자들과도 만나면서 지식과 지혜의 폭을 넓혀 갔다. 이러한 영향들을 받아가며 이제까지 채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던 낙스의 사상들은 체계화되었으니 이후에 스코틀랜드에 돌아갔을 때에 종교개혁의 지도자적 위치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된 셈이었다.<sup>66)</sup>

1555년 11월 잉글랜드의 기독교인들은 칼빈의 협력 하에서 제네바에 독자적인 잉글랜드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낙스의 영향아래 '교회헌장'과 '예배의식'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1556년 2월10일 「기도의 형식과 성례의 집행」(The Forme of prayers and Ministration of the Sacrament ets)을 출판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예배의식은 칼빈과 포올레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sup>67)</sup>

이렇게 낙스는 고국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고국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한 관심으로 2번의 귀국길에 오른적이 있었다. 1555년 9월에 고국인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였으나 아직 종교개혁은 시기상조인 것을 판단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고, 1557년 10월에 디페(Dieppe)까지 도착하였지만, 고국에서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 때문에 입국을 불허하는 편지를 받고 다시 발길을 돌려다.<sup>68)</sup>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여러차례 서신을 보낸다.<sup>69)</sup> 또한 낙

65) Reid, Stanford W. 「존낙스의 생애와 사상」, 서영일 譯, (CLC, 1999), p165

66) Ibid.

67) Ibid

68) Ibid.p206

69)①스코틀랜드 귀족계급에 보낸 호소문(Addressed to the Nobility and Estates of Scotland)-귀족들을 엄히 질책하면서 백성의 대표들로서 그들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몸과 영혼을 압박하는 우상의 굴레로부터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고 당부

②스코틀랜드의 진실한 신앙고백자들(The Lords and Other Professing of the Truth in Scotland)-귀족들이 개혁운동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교회의 개혁을 거부하는 통치자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한 공개적인 저항을 할 수 있으며,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③여성의 괴물정부에 대항하는 트럼펫의 첫 번째 울림-여성들의 국가지배는 자연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④스코틀랜드 평민들에게 보내는 편지(A Letter Addressed to the Commonality of

스는 1558-9년 사이에 성경번역과 주석사업에도 참여했고, 많은 서신들을 교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정론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 Anabaptist의 저서 「필요에 의한 부주의」(Careless by Necessity)에 대하여 긴급편을 쓰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네바에서 그의 생활은 학문과 목회를 통해서 개혁활동에 전념한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70)</sup>

낙스는 이러한 활동을 거듭하면서 교회개혁을 이룬 칼빈에 의해 개혁된 제네바를 보고 “사도 시대 이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극찬하였고<sup>71)</sup>, 칼빈의 영향속에 낙스의 개혁사상은 체계화되어 갔다.

## B. 존낙스와 스코틀랜드 교회의 성립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떠나 있던 동안에 그의 편지들과 여러 도움으로 개혁과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회중과 영주들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서의 개혁세력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운동의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로마교회와 메리(Mary of Guise)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박해를 가했다.<sup>72)</sup>

이같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들과 메리와의 대립이 극에 달할 즈음, 1559년 5월2일에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귀국하였고, 퍼스(Perth)에 있는 개혁세력들에 합류하였다.

낙스는 St. Giles 교회의 목사로 추대되어 군중들에게 설교하였고, 개혁의 열정에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sup>73)</sup>

---

Scotland)-일반평민들도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통치자나 평민이나 동일하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평민들도 진실한 설교자를 통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Knox, 「Works」, 4:349, 4:425-28 재인용. 김상식,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신대 석사학위논문, 1991), pp49-50

70) Reid, op.cit, p190

71) 낙스는 록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저는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 이 곳이야 말로 사도들의 시대 이후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는 진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종교가 이처럼 신실하게 개혁되어 가는 모습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Ibid.

72) 바티칸과 기즈가의 종교적 압력을 받았던 섭정 메리는 '인가받지 못한 사람들'(Unauthorized persons)의 설교를 금지시켰고, 부활절은 모든 교회가 로마교회의 의식대로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다. 1559년 5월10일에 이르자 그녀는 기독교의 모든 설교자들을 소환하여 '반역자'로 선언하려 하였다. 이러한 개혁세력을 저지하면서 섭정메리는 로마교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프랑스 군대의 지원을 받아 스코틀랜드 개혁자들을 박해하였다.

P.H.Brown, 「Life of John Knox III」, (A.C.B press, 1859), p69

재인용. 김상식, op.cit., p53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스코틀랜드 군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개혁세력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군사원조요청을 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를 승낙하여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급기야 1560년 6월16일에 에딘버러 조약이 체결되었고 프랑스와 잉글랜드 양국의 군대는 동시에 철수하였고 이 조약으로 인해 그 동안 지속되었던 종교전쟁은 일단락 되었다.

종교개혁운동은 이듬해인 1560년 8월8일~27일에 개최되었던 스코틀랜드 의회의 요구에 따라 4일 동안에 낙스를 포함한 6명의 목사<sup>74)</sup>에 의해서 작성된 25조항의 신앙고백서<sup>75)</sup>를 그 열매로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8월17일 의회에서 낭독되고 통과되었다.

그 후 의회와 독립적으로 첫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가 1560년 12월 20일에 개최되었고 목사 6명과 지교회 총대들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6인에 의해 제1치리서(First Book of Discipline)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교회의 독립성이 주장되었으나 아직 국가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시기였다.<sup>76)</sup>

## C. 스코틀랜드의 교회정치규정들

### 1. 제1치리서 (The First Book of Discipline)<sup>77)</sup>

의회에 의해서 신앙고백서 작성을 요청받았던 6명의 목사들은 교회행정과 권징시행에 관한 치리 작성도 요청받았다. 그것은 「제1치리서」 혹은 「교회정치와 권징」으로 알려진 것으로 신앙고백서와 함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상이 집약된 역사적 문서이다.<sup>78)</sup>

73) A.M.Renwick, 「The Story of the Scottish Reformation」, (London:I.V.F,1960), p118  
재인용. 김상식, op.cit., p54

74)다른 5명의 목사는 John Spottiswood, John Row, John Douglas, John Winram, John Willock 이다.

75)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초대교회적이고 복음적인 교리로 되어있으며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교회, 성례, 세속정치로 끝을 맺는다. 성례론은 39개 신조와 비슷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강력하였다. 그런데 이 고백서는 특정한 교회정치체제나 예배형식을 주장하지 않고 임의대로 의식을 행하도록 허용하였다.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譯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p227-228

76)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p155

77) Knox. John, 「John Knox's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Edited by William Croft Dickinson, (Philosophical Library,New york,1950)

제1치리서의 초고는 1560년 4월29일 집필되기 시작하여 1560년 5월 20일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이 치리서는 귀족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로마교회의 재산을 종교와 교육 그리고 빈민의 복지를 위하여 개혁된 교회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낡스의 강력한 제안 때문이었다. 귀족들의 대다수가 로마교회의 재산분배를 기대하면서 종교개혁에 협력하였던 것이다.<sup>79)</sup> 결국 제1치리서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치리서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제1치리서의 작성동기는 '순결한 생명을 구하며, 폭정을 억제하며, 억압받는 자를 옹호하며,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진지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공평하게 대하며, 우리의 이웃을 해하는 모든 것들을 억누르기 위함'이요, 십계명의 둘째판에 서술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하게 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런 원리를 근거하여 제1치리서는 교회와 사회의 계급구조를 제거하였고, 모든 신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하였다.<sup>80)</sup>

이 문서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규정에 나타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4개 직분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었다. 목사, 장로, 집사직은 교회의 항존직으로 인정하였으나 종교개혁 직후의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감독관(Superintendent)과 독경사(Reader)의 직분을 첨가하였다.

## a. 제1치리서의 직제들

### (1) 목사

목사의 자격과 그리고 그 임무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규정에 나타난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목사를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회중들의 투표에 의하여 후보들을 선출하고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들 중 1인 선출, 그리고 최종후보에 대한 회중들의 재투표로 구성되었다. 이런 선출은 이전에 없던 회중들에 대한 특권이였다. 목사가 한번 선택되면 회중은 그를 주 예수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

78) Renwick, A.M.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 홍치모 譯, (생명의말씀사, 1980), p155

79) 1561년 1월15일 "성직자와 귀족합동회의"가 소집되어 6일간 치리서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초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임스 해밀튼(James Hamilton)을 비롯한 27명의 귀족이 서명하였다. 이 귀족들이 서명하면서 제1치리서는 "추밀원법"으로 개칭하는 것과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로마교회의 성직자들이 개혁주의 목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신토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는 치리서의 근본적인 정신과 상이한 것이었다. 귀족들은 치리서에 규정된 사항을 실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Reid, op.cit.,p257 재인용. 김상식,op.cit.,p68

80) 오덕교, 「장로교회사」,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5), p121

사로서 존중하고, 성경말씀이 전하여 질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다.

장로교 정치형태를 취한 모든 교회들은 목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교회치리회들을 통한 세심한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교회치리회(Consistory)는 목사에 대한 치리와 관련하여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순회감독과 그의 교회의 동의하여 목사를 면직시키는 권한을 소유하기도 하였다.<sup>81)</sup>

## (2)지역순회감독(Superintendent)

당시에 목사의 수는 극소수였다. 1560년 12월 20일 제 1회 총회 때에 불과 6명의 목사와 36명의 장로가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전국적으로 6명 이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스코틀랜드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유감스러울 정도로 극소수였다. 이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독경사(Reader)들을 임명해서 주일에 성경과 공중기도서들을 읽게 하였고, 그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10~12명의 경건하고 학식있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임명하였다<sup>82)</sup>. 이들은 독경사들 이외에도 다른 목사들의 신실성을 지도·감독하였다.

어떤 이는 이 감독의 직분이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당시 세속 행정책임의 틀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여 엘리자베스 당시의 영국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주교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존낙스가 주교직을 인정하였다고 한다.<sup>83)</sup>

81) Macgregor, Janet G.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최은수 譯, (솔로몬, 1997), p69

82) 제1치리서는 이 직제의 설립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왕국의 많은 지역들이 진정한 교리의 고갈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계속 거주하며 목회하도록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로 임명할 것을 우리는 고려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적합한 한 직제를 생각했는데, 현금 이 왕국을 대표하는 신실하고 학식있는 사람들 가운데 12명내지 10명을 선발하여 교회들을 돌보며 설립하고, 규례를 확립하고, 목회자들이 없는 지역을 돌볼 목사들을 임명하도록 한다...이런 제도를 설립하는 의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왕국전체에 걸쳐 보편적으로 전파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이 직제로 임명된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그들 개개인은 반드시 설교자여야 한다...그들(지역순회감독)은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이상 설교를 해야 한다...그들이 관할하는 대표적인 장소에서 3~4개월 정도 머무른 이후, 그들은 다시 방문길에 올라야 하며, 방문중에 그들은 설교를 행할 뿐 아니라, 목사들의 삶, 근면성, 행위들을 감독하여야 하며, 지교회의 질서나 성도들의 신앙상태도 아울러 둘러보아야 한다. 더욱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공여를 받는지, 젊은이들이 어떻게 훈계를 받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들은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훈계하며,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치명적인 범죄들에 주목해야 하며 교회의 권위로 이러한 범죄들을 교정해야 한다."

83) 그러나 낙스가 처음 작성한 원본에는 감독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1560년 가을 존 윌락(John Willock)과 존 스팟티스우드(John Spottiswood)가 수정작업에 참여하면서 감독자라는 말이 나타났으며, 치리서의 감독자는 주교와는 달리, 그 임기가 한정되었으며 "자기가 관할하는 지방으로부터 비판과 치리를 받는 입장이었으며, 총회때마다 집회 초기의 활동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낙스는 장로교 신앙 때문에 에드워드 6

감독자의 의무는 말씀을 전파하며 교인을 심방하는 것이었고, 만일 감독자가 직무에 게으르면 직위에 상관없이 그 직분에서 물러나야 했다.

### (3) 독경사(Reader)

목사가 부족한 당시의 여건에서 독경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sup>84)</sup>. 독경사는 목사가 없는 교회에 회중에 의해서 선출된 평신도인데, 이들은 회중에게 능력이 인정되면 권면자(Exhorter)의 지위로 승격되어 성경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기도문도 읽었고 성만찬까지 집례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독경사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정식 목사의 자격을 얻는 자도 많았다.<sup>85)</sup>

1560년 약 12명의 목사로 시작한 개척교회가 급성장하여 1567년에는 1,048개 교회에 257명의 정식목사와 455명의 독경사와 151명의 권면자가 일하는 교회로 급성장했다. 반면에 감독관의 수는 5명밖에 없었다. 이는 정식목사의 수가 급증하자 감독관이나 독경사는 자연스럽게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4) 장로와 집사

장로는 모든 공적인 일에 목사의 조력자였다. 장로는 집사와 같이 1년 임기로 회중의 자유투표에 의하여 피선되었으면 재선도 가능했다.<sup>86)</sup>

제1차리서의 놀라운 특징은 장로에게 목사의 생활, 예의, 근면성 및 연구자세를 주시할 임무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장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사를 권유하고 시정하며 면직이 합당한 경우에는 교회법정이 소송하도록 되어있었다.<sup>87)</sup>

한편 집사의 임무는 칼빈의 교회규정에 나타난 대로 교회재정을 관리하고 구제와 어려운 신도를 돌보는 일이었다. 특히 이 문서는 빈민구제에 큰 관심을 나타내는데,

---

세의 로체스터 주교직 제안을 거절하였고, 주교직이 비성경적이라고 간주하여 요한 더글라스(John Douglas)가 세인트 앤드류스의 주교직에 취임하려할 때 강력히 반대하였다.

오덕교, op.cit., pp122~123

84) 제1차리서는 다음과 같이 이 직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직자가 없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서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한다 ...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독경사들은 누구나 이 보다 폭넓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 교회의 동의를 얻어 성례를 집행할 수도 있다."

85)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171

86) 장로들과 집사들의 선거는 매해 있어야 한다(우리는 매년 8월1일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책을 오래 행사할 경우에 그들이 교회의 자유를 남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 사람이 1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지만, 그는 공동의 자유선거에 의하여 매해 다시 선출되어야 한다. 단 회계집사는 3년동안 집사직분을 다시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

87) 물론 장로들은 그들의 목사들의 삶, 태도, 근면성, 연구를 감독한다. 만약에 목사가 권면을 받을 만하면 장로들은 그들을 권면해야 한다. 그리고 목사들이 교정이 필요하다면 장로들은 교회 및 감독과 협의하여 그를 퇴위시킬 수 있다



가난한 자를 게으름과 죄악의 결과로 생겨난 이들로 간주하지 않고, 구제의 대상으로 여겨 교회가 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하여 성찬예식 때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특별헌금을 할 것과 집사들이 부자들로부터 1년에 4번씩 구제헌금을 거두어 가난한자를 돌볼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의 언급과 같이 구제사업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행하기 위해 로마교회가 소유하던 땅을 교회가 양도받아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당시 교회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귀족들의 반대로 실현하지는 못했다.<sup>88)</sup>

#### b. 제1차리서의 교회회의들<sup>89)</sup>

장로교 정치제도의 본질적인 원칙은 치리회의 업무에, 임직받은 목사들 외에 장로와 집사들과 같은 직분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적용은 치리회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양성을 갖도록 했으며, 특별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직제들간에 특별한 조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 (1)지교회치리회(Consistorie)

당시 장로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였던 제도이다. 이 치리회는 목사, 장로, 집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주된 업무로는 교회치리권의 행사, 개교회 업무의 관장, 지교회 목사를 선출할 때 집사들을 제외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도적인 일을 행사하였다.

##### (2)성경해석을 위한 주례회동(Weekly Assembly of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성경해석을 위한 모임은 1560년도 스코틀랜드 개혁가들이 가장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고 그 교회에 적합한, 당시 개혁교회들의 제도로부터 차용해 온 것이다.<sup>90)</sup>

이 모임은 매주 모였으며, 도시나 지역에 거주하는 직분자들과 회중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이들은 목사직으로의 소명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 모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88)오덕교, op.cit., p123

89) Macgregor, Janet,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솔로몬, 1998), pp80-86

90)성경토론을 위한 모임은 스위스 교회들에서 많이 목격되었던 제도로, 바젤, 베른, 로잔, 그리고 제네바 등지에서, 이들 각 지역의 목사들이 이 목적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3)지역순회감독자회의(Superintendent's Council)와 총회(General Assembly)

1560년까지의 내적증거들을 기초로 스코틀랜드 교회 정치제도 중 지역순회 감독자 회의와 총회의 기원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1치리서에 나타난 지역순회감독자 회의, 즉 목사들의 선거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이 제도가 지역순회감독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의 지교회치리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가 지역순회감독으로 임명을 받거나 자신에게 대한 교회치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어떤 치리회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제1치리서가 명시한 총회의 직무들은 세가지인데 첫째로 지역순회감독을 일정 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이거시키는 것과, 둘째로 목사를 일정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거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순회감독들로부터 각 지역에 속한 교회들의 상황을 보고 받는 것 등이었다.

c. 제1치리서의 구조

제1치리서는 교회행정과 치리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사상이 집약된 문서로서 디킨슨(W.C.Dickinson)박사는 이를 9개항목<sup>91)</sup>으로 구분한다. 처음 3개항목은 교리적인 문제로 나스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이미 사용해오던 칼빈의 개혁사상의 교리를 반영한 것이며, 나머지 6개항목은 효과적인 교회운명을 위한 정책과 조직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제1치리서의 전체적인 틀과 내용들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규정”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sup>92)</sup> 스코틀랜드에서의 제한된 경험만을 가지도 있던 개혁가들은 망명생활 중에 경험했던 일들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91) Knox, 「History」, 2:280-324, W.C.Dickinson, 「Knox's History」 vol 1

The First Head, of Doctrine.

The Second Head, of Sacraments.

The Third Head, Touching the Abolishing of Zdolatry.

The Fourth Head, Concerning Ministers and their Lawful Election.

The Fifth Head, Concerning the Provision for the Minister, and for the Distribution of the Rents.

The Sixth Head, of the Rents and Patrimony of the Kirk.

The Seventh Head,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The Eighth Head, Touching the Election of Elders and Deacons,&c.

The Ninth Head, Concerning the policy of the Church.

92)김득룡, "제네바 교회 헌법규정 연구", 「신학지남」, 제3집.44권 (1977.가을호),p27

## 2. 제2치리서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메리여왕이 왕위에서 폐위되면서, 스코틀랜드는 강력한 장로교회 국가가 되었다. 1567년 의회는 1560년 의회가 결정한 정책들을 다시 확인하였고, 주교를 임명하는 대신 목사를 세웠다. 그러나 닉스가 1572년 사망하면서, 제임스의 섭정이었던 모튼의 백작은 감독주의를 스코틀랜드에 다시 소개하고 요한 더글라스를 주교로 임명하므로 장로정치는 다시 도전 받았다. 이러한 배도의 시기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이끈 사람이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이다.

그는 1545년 발도비(Baldovy)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안드레 대학교의 메리 대학을 나온 후 파리로 가서 유명한 피터 라무스의 제자가 되었다.<sup>93)</sup> 곧이어 앤드류 멜빌은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았다. 제네바에서 멜빌은 퍼거(Ulrich Fugger)라는 아우구스부르크 은행가의 도움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본들을 구한 후, 연구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칼빈의 임명을 받아 제네바 아카데미의 헬라어 강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시민법 학과의 과장이 되었다. 멜빌은 스코틀랜드에 귀국한 후, 고등교육의 실시와 장로교 정치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멜빌은 1574년 글래스고우 대학교 총장에, 1580년에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총장에 취임하여, 교과과정, 교수법, 학문성, 학사행정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는 제네바대학 교육 제도를 스코틀랜드에 이식하였고, 닉스에 의해 작성된 “제1치리서”를 개정하여 1578년 “제2치리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를 만들었다. 그는 “제2치리서”를 보다 더 성경에 가까운 장로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sup>94)</sup>

닉스가 감독에 관하여 관대하게 받아들였던 것보다, 멜빌은 감독정치는 불법이며,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므로 어떤 상황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하였고, 칼빈처럼 교회의직분을 장로와 집사 둘로 나누었고, 성경에 나오는 “감독들, 목사들, 그리고 목회자들(ministers)은 동일한 용어”라고 장로직분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제2치리서”는 1578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었고, 1581년 총회에서 인준되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닉스는 개혁자였지만 멜빌은 개혁을 정착시키고 인도하고 지도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가 대학에서 미친 영향은 누구의 추종도 불허하는 입장이었다.<sup>95)</sup>

93) 손병호, 「장로교회의 역사」, (그리인, 1993)

94) 오덕교, op.cit., p128

95) 손병호, 「장로교회의 역사」, (그리인, 1993)

제2차리서는 교리, 훈련, 성찬 등 세가지로 크게 구분되며,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두었고 박사와 교사를 첨가하였다. 본 문서는 교회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고,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일한 영적인 왕이시오,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세속적 수장(首長)을 이 땅위에서 갖지 않는다”(I,10)고 한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권위와 능력, 그리고 정치는 순수하게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분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I.11) 이 점에서 본 문서는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처럼 본 문서는 교회의 정치가 세속국가와 엄격히 구분되어야함을 말하고 있다.

본 문서는 칼빈의 주장을 따라, 비상직과 일상직을 말하는 바, 일상직 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목사직, 교사직, 장로직, 집사직이다.(II,10) 따라서 본 문서는 이 네직분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하며, 그 이상은 필요없는 것으로 본다.

#### a. 제2차리서의 직제들

##### (1)목사

1581년 노회제도의 도입은 목사들의 위상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노회가 목사들의 선거와 면직을 관장하며 그리고 그들의 행동거지를 감독하고 사상적 차원에서 그들을 견책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총회로 보고하는 기능들을 담당하였다.<sup>96)</sup>

제2차리서에서는 말씀의 교역과 성례전 집행권이 목사에게만 있다고 보고 목사를 ‘pastor’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기 때문이요, ‘episcopi’ 혹은 ‘bishop’라 부르는 것은 양무리를 지키기 때문이요, ‘ministers’라 부르는 것은 양무리에 대한 섬김 때문이요, ‘presbyters’와 ‘seniors’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영적 통치를 수행할 때 지녀야 할 비중과 태도 때문이다.<sup>97)</sup>

##### (2)교사 (혹은 박사)

제2차리서의 규정에 따라 교사들은 처음으로 대회의 정회원이 되었다.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등에서 교사들의 회원권이 확보된 데에는 앤드류 멜빌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1580년 총회에서 목사가 교사로 이직하려면 목사직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96) Macgregor,op.cit.,p164

97)이형기,op.cit.,pp173-174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박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98)</sup>

### (3) 장로

제2치리서의 규정에 따라, 교회의 장로들은 종신직이 되었다. 이전에 장로들은 선거를 통해 1년 임기제로 활동하였었다. 멜빌은 본 문서의 장로직에 대하여 제1치리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로들의 지위는 격상되었으나, 목사들을 권장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은 없어졌다. 장로직은 평생직이 되었고, 안수례로써 임직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같은 변화에는 실천적인 이유가 있었다. 즉 교회가 왕의 지배하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어서 교회를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필요를 느꼈었다... 그런데 안수례는 곧바로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17세기에도 다양성을 보였다.<sup>99)</sup>

본 문서에서 말하기를 “모든 장로들이 말씀의 교사일 필요는 없다. 그들이 말씀의 교사여야 하고, 따라서 두배로 존경받아야 하지만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항목들에서는 주로 목사와 교사들을 감독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치리장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 (4) 집사

제2치리서에 발견되는 변화는 집사의 권한의 축소이다. 제1치리서에서는 집사들은 지교회치리회와 대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었다. 제2치리서에 따르면 그들은 어느치리회에서도 정회원이 될 수 없었는데, 이것은 제네바교회의 집사들의 위상과 일맥상통한다.<sup>100)</sup>

### (5) 방문자

제2치리서에서 언급된 방문자는 이전에 제1치리서에 있는 지역순회 감독이 담당하던 직무들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방문자는 한 치리회가 그 관할 경내에 발생한 교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파송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런 조사권은 매년 제네바 교회에서 선출되었던 방문자의 주된 임무였던 점으로 보아,<sup>101)</sup> 새로운 형태의 스코틀랜드 방문자 직제는 제네바교회를 모델로 제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직제의 기능과 연관하여 이미 밝혀진 위험성들을 고려하여, 스코틀랜드

98) Macgregor, op.cit., p163

99) 이형기, op.cit., pp174-175

100) Macgregor, J.G., op.cit., p166

101) Calvini Opera, Vol. x .pp.45-48, 98-9, 재인용 Macgregor, op.cit, p166

방문자들은 제네바 교회와는 달리 주기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그들을 임명하였다.<sup>102)</sup>

## b. 제2치리서의 교회회의들<sup>103)</sup>

당회<sup>104)</sup>와 노회, 대회와 총회가 있었다.

### (1)노회(Presbytery)

제2치리서는 교회정치제도적 측면에서 지역과 지방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노회 또는 장로회이다. 1577년 완성된 제2치리서는 노회가 목사, 박사,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지역에 있는 각 당회에서 선발된 자를 의미하였다. 집사들은 노회의 회원이 될 수 없었다.

노회는 목사의 설교가 정통성이 있는지, 성례들이 바르게 시행되는지, 헌금이 신실하게 집행되는지, 교회의 치리가 권위있게 유지되는지, 대회나 총회의 결정들이 각 교회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지를 감독하였다.

노회제도의 설립은 제2치리서의 주된 성취였다. 기타 변경된 사항들은 이 새로운 제도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율적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 (2)대회

대회의 의장은 그가 지역순회 감독이든, 방문자이든, 또한 그 지방의 감독이든 간에 감독제를 폐지하였고, 그 자체 내에서 회장을 선출하였다. 대회들은 그들의 경내에 있는 노회들을 구성하였다. 여타의 교회치리회들과 같이 대회는 특별한 조사를 위해 방문자를 파송했으며, 한 명이나 그 이상의 방문자들을 선별하여 총회에서 파견한 인사들과 더불어 공동으로 조사작업을 벌이기도 하였다. 1586년 대회가 노회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노회들이 당회들에 대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 (3)총회

총회의 회원은 교회권 인사들로만 제한되었으며, 1586년 제정된대로 목사, 박사, 그

102)Ibid, p166

103) Macgregor, op.cit..p152-162

104) 제1치리서에서 지교회치리회로 지칭되었던 당회는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

리고 장로들이었다. 집사는 정회원에서 제외되었다. 1581년에 확정되고 다음해에 재확정된 규정에 의하면, 교회치리회들, 특히 총회는 교회의 모든 규칙들과 절차들을 제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총회가 갖는 권위를 말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교회를 설립하고 양성하는 지역순회 감독의 직무가 이양되었다. 로마교회의 교리적 모순에 항거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점에서 이것은 중요한 임무였고 1581년 또한 목사들에 대한 교리심사권을 갖게 되었다.

### c. 제2치리서가 제1치리서에 비해 보완된 점

#### (1)노회제도 신설

1580년에 노회를 조직하였으며 목사의 안수와 훈련을 시행하였다. 노회조직은 산하의 모든 목사와 교회에서 파송한 한명씩의 장로들로 구성하였으며 노회의 회기에는 사경회를 반드시 개최하였다.

#### (2)감독제 폐지

제1치리서에서는 지역순회감독제가 순전히 임시적인 제도이며 목사들의 평등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 (3)독경사제도 폐지

1581년 총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정치 제도로부터 독경사의 직제를 폐지하였고 더 이상 후보자들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 (3)장로의 임기와 집사의 권한

장로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되었고, 노회의 치리회의 문제에서 목사치리에 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지교회치리회와 대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었던 집사직도 이제는 어느 치리회에도 정회원이 될 수 없도록 집사직은 경감되었다.

제1치리서는 개혁교회의 공식적인 설립과 동시에 작성된 연고로 교회의 의무들과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면, 제2치리서는 엄격하게 교회헌법으로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변화된 시대적 정황들을 초두에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 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영어로 된 최초의 종교개혁 신앙고백이다.<sup>105)</sup>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완성되기 7년전에 작성이 되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신학적 영향이 고루 반영이 되어있다. 1560년에 만들어진 이 신앙고백을 제1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라 부르는 것은 1580년 것과 구별이 되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교회와 교회정치체계에 대한 부분만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 a. 제16조 교회에 관하여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회의 기반을 하나님의 선택에 두고 그 서술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을 믿듯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세상 끝날에도 있을 하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교제, 곧 회중을 믿는다.

이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1559)와 일치하는 면을 보인다.<sup>106)</sup> 교회의 기반을 먼저 다루고 교회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되는 권세를 인간에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칼빈의 흐름과 같다.<sup>107)</sup>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교회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며 신부이다. ...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라고 불리워진다.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이익의 열매, 즉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한 신앙, 한 세례를 가진 이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다.

105) J.Rogers, 「장로교신조」, 차종순 譯, (한국장로교출판사,1995),p93

106) Inst.IV.1.2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

107) Inst.IV.1.2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므로(엡1:22-23) 한 머리에 의존하므로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롬12:5; 고전10:17; 12:12,27)서로 단단히 연결된다.(엡4:16)



전적으로 교회의 근거를 선택에 두는 여러 표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모독하는 자들을 극도로 혐오하고, 공평과 정의에 따라 사는 사람들, 또 고백하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생명도 구원도 없다. 그러므로 성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이 아니고는 아무도 교회에 속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고백하고 믿는다. 우리는 신앙이 독실한 부모와 함께 그들의 아이들을 이해하게 된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교회를 알고 있다. 또 교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선택된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승리의 교회라고 부르며 죄와 악마에 대항하여 싸우며 앞으로 세상에 살 사람들도 포함한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1559)에서 말하기를 택자들을 부르심은(엡5:30) 영생을 다 같이 받게 하실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비록 우리주위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을 숨겨두시고 때가 이르면 일으켜 세우신다.<sup>108)</sup>

#### b. 제20조 총회와 그 힘과 권위 및 총회의 소집의 이유에 관하여....

낙스도 또한 칼빈처럼 교회에 대하여 다른 권력이 간섭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 교회를 다스림에 대하여 어느 개인에게 권위를 두지 않고 말씀 안에서의 바르게 선회의에 그 권위를 두었다.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상호 보완할 것을 말하고 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정식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우리에게 제안된 것을 경솔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조사도 없이 총회라는 이름아래서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사람들이므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갈2:11-14).

그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결정과 명령을 선언하는 한 우리는 그 회의를 존중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총회의 이름 아래 새로운 신조의 작성을 주장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되게 조직이나 교의(敎義)의 작성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떠나서 인간의 교의와 조직에 복종시키는 악마의 교의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다(딤펴전4:1-3).

---

108) Inst.IV.1.2

말씀의 기준에 철저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오직 말씀이 그들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말씀 밖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칼빈에게 있어서의 말씀 안에서 모든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는 적정과 절도<sup>109)</sup>의 의미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회의의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단을 논박하기 위하여(행15:), 한편으로는 회원들의 신앙고백을 후세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이며, 총회가 하는 일이 과오가 없다는 의견이나, 특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한번 인간의 회집인 총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며, 거짓교리의 유입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이단들에 대한 논박)그리고 후대에 자신들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노력도 남기려 하였다.

이것이 총회의 주요 이유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 밖의 이유는 선량한 정치를 위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처럼(딤후3:15; 히3:2), 모든 것이 품위있고, 질서 있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고전14:40). 우리는 어떠한 정치와 질서도 그것이 모든 시대와 장소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스는 프랑스 신앙고백 제 32조에서의 칼빈의 말을 인용하여 교회의 정치 제도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융통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교회의 제도가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씀안에서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자칫 잘못 해석한다면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의식(儀式)은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교회를 교화(教化)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신을 품게 하는 때는 그것을 변경해도 좋으며 또 변경시켜야 한다.

제도로서의 정치는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다. 자유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충분히 말씀 위에 그 기초가 튼튼히 세워진 이후 성숙한 교인들과 교회들에서

---

109)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 (nusquam.... nisi in verbo Dei quaerere, nihil.... nisi cum verbo Dei cogitare... nihil... nisi per verbum Dei loqui)"과 같은 그 엄밀한 적정과 경외의 규범이라는(?) 해석학적 근본원리를 가지고.... 즉 기독교인들은 성경말씀을 향하여, 그 안에서 몰아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여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규, "조직신학편람 I"(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강의안, 1998)

만 이런 논의들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직제들이 성경에 맞추어 세워지기 보다는, 교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려의 부분이 많다.

#### 4. 나스와 스코틀랜드에 미친 칼빈의 영향들

##### a. 칼빈과의 만남

나스의 생애속에서 칼빈과의 만남을 통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칼빈과 나스의 만남이 이뤄진 구체적 시기는 아마도 나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제네바로 망명을 갔을 시기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칼빈과 나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나스가 프랑스 해군의 포로가 되어 노예생활을 했을 때 Rouen과 Nantes에서 육상근무한 적이 있고, 1548년 당시 이 지역에는 칼빈의 개혁사상이 널리 파급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나스는 칼빈의 개혁사상을 접하게 되었다<sup>110)</sup>. 이것을 계기로 칼빈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기대했을 것이다.

1549년 나스가 칼빈의 예레미야서 주석서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1539년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입수하여 읽었거나 아니면 잉글랜드로 망명을 가기 전에 제네바를 방문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무렵부터 나스는 칼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의 사고 형태는 칼빈의 사상에 입각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11)</sup>

또한 1554년 11월 나스는 프랑크푸르트의 망명교회의 청빙을 받았을 때, 칼빈의 권유를 받고 그 청빙을 수락하였다.

그 후 결정적인 영향은 1555-1559년의 나스가 제네바에서 보낸 기간이었다. 칼빈이 시무하던 성베드로교회 옆 부속건물에서 나스가 칼빈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절호의 기회였다.<sup>112)</sup>

제2차리서를 작성한 앤드류 멜빌 또한 제네바에서 수학하였으며 칼빈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멜빌은 1574년 스코틀랜드에 돌아왔는데, 그 때 베자(Theodore Beza)는 “제네바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보여줄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앤드류 멜빌이다.”라고 편지하였다.<sup>113)</sup> 멜빌은 스코틀랜드의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이룩한

110) Knox, 「Works」, 1:206 재인용 김상식, op.cit., p81

111) 홍치모, 「칼빈과 나스」, (성광문화사, 1991), p155

112) Ibid., p157

113) 오덕교, op.cit., p128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처음으로 성경에서 주교와 장로의 개념은 같다는 칼빈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로교의 뿌리되는 입장을 세워 놓았기 때문이다.<sup>114)</sup>

그런 멜빌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바른 교회정치를 이룩하려하는 시기에 나타난 보배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b. 칼빈의 저작과 낙스의 저작들

낙스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표지로서 “신앙고백서”, “제1치리서”, “공중예배규정서”를 저작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칼빈의 저작인 “신앙고백서”(Brief Confession of faith), “교회규정”(Ecclesianstial Ordinance) 그리고 “예배서”(Order of Service)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1치리서”와 “제네바교회규정”에 나타난 교회직제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놓였던 스코틀랜드의 종교, 정치적인 상황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14)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강의안, 1997), p46

## IV.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타난

### 칼빈의 신학사상

#### 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1.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연결되어 영국본토에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일찍이 존나스의 종교개혁에 의해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 땅에 심어져 세워진 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정치제도와 감독제도가 혼합되어 발전하고 있었다.<sup>115)</sup> 이런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소집되었던 것이다.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제임스 1세 때, 로드(Laud) 대주교는 영국을 국교회의 형태로서 통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왕과 대주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자들은 계속적인 반대를 표했고,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 때 의회는 찰스 1세와 전쟁(English Civil War)을 하면서 영국의 개혁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 교회 정치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영국 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와 기타의 개혁과 교회처럼 되기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왕이 이러한 의회의 요구를 무산시키자, 의회는 자체적인 명령권을 발동하여(1643년 6월 12일), 1643년 영국의 감독제도를 폐지하고 교리와 교회 정치 문제를 위해 7월 1일에 평신도 사정관 30인(10인은 상원의원, 20인은 하원의원)과 121명의 선발된 신학자들<sup>116)</sup>을 모아 Westminster 사원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소집된 신학자들은 주로 장로교인들이었는데, 감독교회와 독립교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소수 포함되었다.<sup>117)</sup>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 7월 1일 시작되어 5년 6개월 22일간 계속되었고, 그 사이에 1,163회의 전체회의가 열렸고, 대단히 많은 위원회와 소위원회도 개최되었다.<sup>118)</sup>

115)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2000), p279

116)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될 신학자들은 121명이었지만 국왕편에서 있으면서 대개 주요 자리에 있었던 유력한 인사들은 빠지고 그중 85명만 참석하였으며 첫소집에만 참석하거나 어쩌다가 나타났던 자들을 제외하면 시종 참석하였던 인물들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포고령에 명시된 대로 그 수가 보충되었으나 최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은 103명이었다.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p141

117) 박해경, 「성경과 신조」, (아가페, 1991), pp194-195

118) Walter L. Lingle,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이야기」, 이종전 譯, (예루살렘, 1992), p80

“공예배 지침”은 1644년 12월에 완성되어 1645년 1월의 회의에서 승인되었고, “정치 모범”은 1644년 11월에 완성되어 1648년에 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신앙고백서”는 1646년 완성되어 1648년 3월에 승인되었고, “대·소요리문답”은 1646년 가을에 완성되어 회의의 승인은 1648년 9월에 났다.<sup>119)</sup>

## 2. 참가자들<sup>120)</sup>

### a. 장로교회파

이 회의의 대다수는 장로교회파였다. 거의 모두가 스코틀랜드 대표였고, 회중 교회에 대해서 온건하였다. 특히 장로교 사상의 발전은 카트라이트(T. Cartwright)와 트래버스(W. Travers)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외에도 의장 역할을 하고, 많은 영향을 끼친 트위스(Twisse), 가테이커(Gataker), 레이놀즈(Reynolds), 팔머(Palmer) 등이 있다.

### b. 감독교회파

의회는 4 명의 고위 성직자를 대표로 선출했는데 웃서(J. Usser) 대감독, 브라운릭(Brownrig), 웨스트필드(Westfield), 프리도(Prideaux) 이다. 그리고 5 명의 신학 박사, 휘틀리(Featley), 헤먼드(Hammond), 홀즈워스(Holdsworth), 샌더슨(Sanderson), 몰리(Moley) 등도 선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두 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이 참석하는 것은 왕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c. 독립교회파

이들은 장로교인들에게 ‘분리해 나간 다섯 형제’라고 칭해졌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과 필립 나이(Philip Nye)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 공동체는 반드시 회심한 신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로회의 제도, 즉 노회나 대회와 간섭없이 운영되고, 교회가 자신의 목사를 임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 d. 에라스티안 (The Erastians)

이들의 주장<sup>121)</sup>은 교회를 하나의 국가의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훈

119) Ibid, p82

120) 박해경, op.cit., pp196-198

121)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 : 교회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지배권의 우위를 인정하는

런과 규율에 있어서 시민정부의 교회정치를 내세웠다. 통치의 열쇠는 세속관리들에게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바랐던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에라스티안주의를 주장한 사람은 셀든(Selden), 라이트푸트(Lightfoot), 콜만(Coleman)등 이었다.

## B.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미친 칼빈의 영향

### 1.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역시 교회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성도의 선택을 말하고 있다. 이는 칼빈과 낙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부분이다. 교회의 정의를 시간과 공간에 제한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sup>122)</sup>.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언급도 빠지지 않고 있다.

1. 불가시적(不可視的)인 보편적(catholic)교회는 택정함을 받은 자의 총수로 되어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하나의 모임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엡1:10, 22, 23; 5:23, 27, 32; 골1:18)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신앙고백서는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칼빈과 낙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역적인 부분 즉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

사상. 독일 Heidelberg의 신학자요 의사인 에라스투스(Erastus)가 주장하여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국가가 국가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을 재판하여 벌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순수한 교회문제에 대해서도 재결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 사상은 16세기 말에 영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대표자는 후커(R.Hooker)이다. 「기독교사전」, (기독교문사, 1991), p679

122)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 즉 천사들이든 사람들이든, 사람들 중에 그들이 죽었든 지금까지 살아있든 간에, 살아 있는 자들 중에 그들이 어느 땅에 행하든 민족들 중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 택함을 받은 전체 수인 교회를 믿는다." *Institutio* 1536, 137. 재인용 김영규, "교회론&종말론"(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p8

2. 가시적 교회 역시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 교회로서(구약시대처럼 어느 한민족에게 국한될 수 없다.) 자기들의 자녀와 더불어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신봉하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1:2; 12:12; 13; 시2:8; 계7:9; 롬15:9-12; 고전7:14) 이 가시적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만 정상적으로 구원을 얻고, 최선의 성장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해야만 한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연합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합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무질서함을 막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3. 그리스도께서 이 보편적인 가시적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역의 직분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자신의 현존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 (고전12:23; 엡4:11-13; 마28:19-20; 사59:21)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구인 인간들을 사용하시어 말씀에 주신 제도를 기준으로 하 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원하신다.

## 2. 제30장 교회의 치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의된 교회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제30장에 나타난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종의 권위를 인간의 힘에 두어서는 안된다.

1. 자신이 교회의 왕과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이 교회 안에 행정을 교회의 직분들의 손에 맡기셨는데, 이것은 국가의 공직과 엄격히 구별하셨다. (사9:6-7; 딤후5:17; 살전5:12; 행20:17,28; 히13:7,17,24; 고전12:28; 마2:18-20; 시2:6-9; 요18:36)

교회의 권한과 세속의 권세를 웨스트민스터신조는 엄격히 구별한다. 국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며 교회도 국가의 우위에 있지 않는다.



2.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늘 왕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따라서 이 직분들은 이 열쇠의 권한에 의하여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이들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과 권징으로 하늘 나라의 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대하여는 복음 설교와 권징의 사면을 통하여 적당한 때에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마16:19; 18:17,18; 요20:21-23; 고후2:6-8)

칼빈도 이 부분을 같은 관점으로 기독교 강요(1559)에서 서술하고 있다<sup>123</sup>). 이런 사상적 영향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흐르고 있다.

3.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하는 형제를 교정하고, 다시 얻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 치리는 다른 형제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많은 형제들을 오염시킬지도 모를 독소를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공언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막는 데에 꼭 필요하다. 만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과 이에 대한 표시의 인치심이 악명높고 완악한 행악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교회 위에 떨어질 것이다.(고전5; 딤후5:20; 마7:6; 딤후1:20; 고전11:27-34; 유1:23)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칼빈도 권징에 관하여 말하며 그를 영원한 멸망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는 것이라 하였다.<sup>124</sup>) 그들에 대한 권징이 증오에서 발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칼빈은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지체가 증가하는 것보다 그 순전한 교리가 바르게 전해지고 시행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4.교회의 직분들은 이 목적을 더 잘 달성시키기 위하여 먼저 충고와 권고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얼마동안 수찬정지를 시키고 범죄의 성격과 해당자의 과실에 따라 때로는 교회로부터 출교를 명할 수도 있다. (살전5:12; 살후3:6,14,15; 고전5:4,5,13; 마18:17; 딤후3:10)

123) Inst.IV.11.2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두 번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 뜻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주 달라서 연결점이 없는 정도는 아니다. 즉 두 구절은 다 일반적인 발언이며 매교 푸는 같은 권세(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와 같은 명령과 같은 약속이 두 구절에 있다. 16장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실천하는 전도에 관한 것이고, 18장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규정에 관한 것이다.

124) Inst.IV.12.8

출교하는 목적은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자는 것이며, 신자들 사이에서 나쁜 예를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방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게 한 이들을 권징할때에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으로 잘못된 이들을 권징하는 것은 바르지 아니하며 이는 반드시 말씀의 정신에 기준을 두어야 하며 그렇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제31장 노회와 총회에 관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어느 개인의 권위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회자체에 그 힘을 신기를 원했다. 당시에도 이를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활동하였다.<sup>125)</sup> 당시의 장로교정치제도를 주장하는 자들과 회중교회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문제가 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1.교회를 더 잘 다스리고 더 잘 세워 나가기 위해 우리는 소위 대회들 혹은 종교회들이라 불리우는 회합들을 필요로 한다. (행15:2,4,6)<sup>126)</sup>

그러나 당시의 회의에서 에라스투스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당시의 한계이었다. 교회의 회의를 국가의 위정자들이 소집할 수 있음이 당시 신조의 최대 맹점이었던 것이다. 다음의 글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당시의 시대적 산물인 노회의 소집에 대한 위정자의 권한에 대한 언급이다.

위정자들이 종교의 일을 가지고 의논하거나 충고하기 위하여 목사들과 그 밖의 다른 책임자들로 구성되는 노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사49:23; 딤후2:1,2; 대하 19:8-11; 29,30장; 마2:4,5; 잠11:14). 그리하여 만일 위정자들이 교회의 공공연한 적수일 때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은 직책상 자기들만으로, 혹은 자기들의 교회에서 대표자들로서 온 다른 책임자들과 함께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여 같이 모아야 할 것이다.

125)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8), p13

웨스트민스터 총회당시 문서출판을 통해서까지 장의논쟁한 인물중에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적 입장을 변명한 가장 대표적 인물들로서 샤무엘 러더포드와 스티븐 마샬, 조지 길레스피 등을 들 수 있겠다. 샤무엘 러더포드는 스코틀랜드 교회개혁시에도 아르미니안주의와 싸우는 글을 발표하였지만,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논쟁과정에서도 회중교회의 입장과 에라스투스주의에 대한 반박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126) 다음 부분이 1788년 수정작업에 첨가되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편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와 같은 회합을 개최하고 거기에 함께 모이게 하는 책임은 개신교회를 목회하는 감독들이나 기타 다스리는 직분들에게 있다. 이들은 직책상 이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권한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이장식, 「기독교신조사」, (컨콜디아사, 1992), pp102-103

웨스트민스터 신조작성 당시에 에라스투스 주의가 극복되지 못하였고, 완성되지 못한 절반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이는 1788년 미국에서 수정된다.

2. 믿음에 관한 교리는쟁들과 재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공적 예배와 교회의 다스림을 보다 더 잘하게 규정을 제정하는 일은 실제로 대회들이나 종교회의들의 책임이다. 이 대회와 종교회의는 행정상 잘못들에 대한 불평을 받아들여 권위있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 대회나 종교회의에서 확정된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한 존경심과 순종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결정들이 말씀과 일치한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행15:15,19,24,27-31; 16:4; 마18:17-20),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제도로써 권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윗부분의 논제에서는 각 회의의 결정을 인간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두는 것을 핵심으로 볼 수 있다.

3. 사도시대 이래 모든 대회들이나 종교회의들은 전지역에 걸친 것이든 특정지역의 것이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많은 대회와 종교회의들이 오류를 범해왔다. 그러므로 이 회의들의 결정들은 결코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될 수 없고, 다만 신앙과 행위에 도움이 될 뿐이다.(엡2:20; 행17:11; 고전2:5; 고후1:24)

곧이어 인간들의 우쭐해짐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결정 즉 사람의 유전이 대대로 영원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4. 대회들과 종교회의들은 교회적인 회무들만을 취급하고 결론한다. 국가 차원의 일들에는 관여할 수 없다. 국가가 특정한 경우에 겸손히 간청해 오거나 양심의 만족을 위하여 충고를 청해 올 경우, 대회와 종교회의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취급할 수도 있다.(눅12:13,14; 요18:36)

국가의 대소사를 관장했던 로마교회의 관습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권력의 분리를 염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조언을 구해오는 견지에서만 국가의 일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C. 웨스트민스터회의에서 결정된 정치모범에 대하여(127)

정치모범을 작성함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몇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이를 작성하였다.<sup>128)</sup> 신앙고백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나, 정치모범을 만들때에는 학자들간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던 듯 싶다.

신앙고백서에 언급한 교직자들이 어떻게 그 소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직분별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1. 직제들

### a. 목 사

정치모범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것은 목사의 직분에 대한 첫 임무를 기도하는 것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는 목사가 하나님께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하였다.

목사는 교회의 일반적이며 영구적인 직분인데 복음 시대에 지시한 것이다. 첫째로 이 직분의 임무는 기도하는 것인데, 자기 양무리를 위하여 또 양무리와 함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한다

이는 목사의 직분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가장 앞에 두어 설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읽고 이를 설교하는 일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양무리를 먹이기 위하여 말씀을 설교하고 그에 따라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책망하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초보적 원리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쉬운 말로 문답식으로(교리문답식)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설교의 일부분에 해당되기 한다.

12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김혜성·남정숙 공역, (생명의말씀사, 1983), pp534-541

128) 첫째 스코틀란드 모델이다. 당시 스코틀란드 교회는 구별된 정치조직체들로 구성된 교회들이었다. 그리고 처음 보딩(Bodin)이 구별하였다고 하는 직임 개념들과 총대개념에 의해서 지교회와 노회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었다. 이에 관련하여 그 당시 찰스 헤엘레가 인식하였던 대로 직책은 직업개념과 비슷하게 어떤 사람에게 고정된 영구직을 주고 총대권은 위임과 직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필립 나이는 이 총대권을 정치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총대행위에 설교와 세례집례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둘째 네덜란드 모델이다. 이 지역의 교회들은 고정되고 분리된 교회들로 되어있지 않다. 토마스 구드윈의 이해에 따르면 그 교회들은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조정되어 있거나 혹은 올바르게 질서가 없는 교회정치, 그러면서 외적인 성격은 순회적 방식의 정치형태였다. (회중은 곧 교회이다. 라고 보는 형태...)

셋째 제네바교회정치모델이다. 칼빈의 당시와 조금 다르게 이해되었다. 그 밖의 신대륙의 교회들을 모범으로 들 수 있으나 회중에게 많은 힘이 실린 형태의 교회였다. 이것이 바로 독립교회의 뿌리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규, op.cit., pp225-226

이것이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도록 하는데 초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되이어 목사의 세 번째 소임을 성례를 집행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다른 비밀을 베풀어주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있다.

요약하여 보면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정신으로 성례를 집행하는 것을 그의 참된 직분으로 보고 있다.

#### b. 교사 혹은 박사

순전한 교리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부각되는 직분이다. 이는 목사의 직분과 엄격히 구분되는 직분이 아님을 말한다. 교사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과 기능상으로 볼 때에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나 목사가 그 소임상 분주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목사가 있을 때,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성경은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사라는 이름과 직위를 제시한다. 교사는 역시 목사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봉사자이며 성례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말씀의 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신 주님은 그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역사하시되 비록 은사는 다르나 한 사람의 동일한 교직자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에 따라 행사되게 하신다. 그러나 한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는 경우 각자가 가장 뛰어난 은사에 따라서 일을 나누어 할 수도 있다.

혹은 여러 다른 불순한 교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여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과 목사 후보생들의 양성을 위하여 이 직분은 세워졌다.

#### c. 교회의 다른 치리자들(장로)

목회자들을 도와 교회내의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처리할 자들을 일컫는다. 이는 상하 종속관계라기 보다 협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다스리는 직책을 권한이라기 보다는 은사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유대교회에 백성의 장로들이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행정을 한 것처럼 정사와 교회의 종교 치리자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들 외에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시행할 사람들을 주사 교회와 행정에 있어서 목사를 돕게 하셨다. 이 교직자들을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장로"라 부른다.

#### d. 집사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교회에서의 구제의 일들을 담당할 것을 말한다.

성경은 집사를 교회에서 구별된 직분자로 제시한다. 그 직분은 항존하는 것이다. 또한 말씀을 설교하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이 직분에 속한 것이 아니고 다만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돌보고 필수품을 분배하는 일을 행한다.

모든 교회를 위한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D.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에 미친 칼빈의 영향

본 신앙고백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칼빈의 신학적 사상을 거의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밀한 칼빈주의적 성격의 신앙고백서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개혁주의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최후의 신앙고백이라는 것과 그 신학적 입장도 16-17세기를 이어 철저하게 각 교리에 있어서 개혁주의적 독특성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고백서는 개혁주의의 신앙고백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입장이라 하겠다.<sup>129)</sup>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교회의 근본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일치점을 보이고 있으며(WMC 25:1), 또한 성도에게 있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연합해야함을 강조(WMC 25:2)하고 있다.

하늘 왕국의 열쇠에 관한 부분도 (WMC 30:2,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칼빈의 영향아래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회의들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31장에서 총회와 노회에 대

129)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강의안, 1996), p50

하여 정의하고 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1559)에서 교회 회의들과 그 권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인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맹종보다는 그 구성원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결정도 성경의 관점에서 살피기를 당부한다. 이런 칼빈의 예견이 이루어지거나 하듯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에라스투스주의의 한계를 넘어 서지 못한 조항을 제23장 3항과 제31장 2항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은 순수 장로교적인 것이 아니고 독립파 교회주의자들과의 조화와 합의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30)</sup> 왜냐하면 당시의 회의 배경과 논쟁들의 성격을 지나칠 수 없으며 그 결과물들이 온전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그 산물들인 고백서와 정치모범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의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

130)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p234

## V. 결 론

칼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더욱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그의 신학은 철저히 교회로 향하였으며, 교회를 위하여 있었다. 그의 성경관은 그의 모든 신학적인 작업들의 결과에 대하여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의 모든 신학적 산물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그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였고 그 교회가 순전한 교리로 유지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런 그의 마음이 그 시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되지 않게 하고자 많은 문헌들을 통해 그의 주장을 만날 수 있다.

그의 영향은 지대하여 나스와 이 후의 웨스트민스터회의 문서들에서 그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 몸을 말씀에 따라 만들어 가는 도구들인 직분자들, 그리고 그 것을 순전히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된다.

이것은 모두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 칼빈의 신학의 독특성은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발한다. 그러므로 칼빈의 주된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본인은 정리한다.

첫째, 오직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의 성경관이 나스와 이후의 스코틀랜드에 영향이 끼쳐졌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제1치리서의 지역순회 감독직분이 있었던 과도기에 멜빌은 더 엄밀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없이 하였고, 성경말씀에 근거하여 노회의 제도를 튼튼히 한 장본인이 되었다. 이러한 정신들이 제네바에서 수학한 나스와 멜빌에게서 보여진다.

둘째, 철저히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인간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아야 할 것을 중시하는 정신이 전체적으로 발견된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요, 그 영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개개인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위에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알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를 것을 강조한다.

위의 두가지가 본 연구에서 초기 장로교의 특징으로 칼빈에게서와 후대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이다.



본 논문의 주제 속에서 필자가 오늘날의 장로교회들이 명심하여야 할 것 몇가지를  
을 또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목사 이외의 교사 (혹은 박사)를 두어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았다. 이러한 정신이 교회 내에서 퇴색할 때에 교회는 혼란의 길을 자초하  
게 될 것이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내의 직분이 명예를 위한 도  
구로 전락하고,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 않을 때에 성례는 무의미한 의식이 될 것이  
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모임이 될 것이다.

둘째 교회의 결정을 개인에게 두지 아니하고 회자체에 둔다.

당회와 노회 여러 가지 회의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과 교의적인 문제들을 결정  
하여야 한다. 국가의 원수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으며,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감독도 교회의 결정을 개인 임의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회의 자체 내에 권위를 두나 이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항  
상 말씀으로 개인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의 재산문제에 대한 정리이다.

낙스의 제1차리서가 의회에서 통과를 받지 못하였던 것도 당시 로마교회가 소유한  
막대한 재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위에서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의 재  
산 문제가 개인의 명의로 사유화되어 관리되는 것을 지양하고, 교회재정의 쓰여지는  
본 목적인 교역자 생활비 그리고 가난한자들을 위해 쓰여지는 구제비, 마지막으로 교  
회 시설을 관리하는 것에 바르게 쓰여져야 할 것이다.

칼빈의 정신대로 바르게 실천적인 목회를 하고있는 자들이 과연 이 땅위에 얼마나  
될까? 그런 시점에서 정확한 칼빈의 연구는 간곡히 요청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의 실  
천적인 방향에서의 접목은 시급하다.<sup>131)</sup>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역사성을 가져야 한다. 시대에 흐름에 부합된  
잘못되어진 성경관의 변혁, 노회와 총회들이 갖는 중요한 관계성과 그 개념들은 오늘

131) 고신대 허순길 교수는 한국교회내의 장로직제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①장로직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원인 ②장로직을 교인의 대표적으로 잘못 보고 있다. ③  
장로의 직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④장로직을 명예직으로 잘못 알고 있다. ⑤장로직을  
평생직으로만 보고 있다. ⑥장로장립을 대사(大事)로 치른다.

허순길, "한국교회의 오해", 두란노, 목회와 신학 1994년 11월호 p54

날 다시금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마무리하며 한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칼빈 이후의 문헌들의 번역에 대하여 국내의 수준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닉스의 글들은 거의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것이 없다. 세계최다수의 장로교회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있다는 현실은 칼빈과 닉스, 멜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순수한 교리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할 뿐이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들이 있기를 바란다. (\*)

## - 참고 문헌 -

### ※1차자료

#### <영서>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Knox, John, 「John Knox's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Edited by William Croft Dickinson, (Philosophical Library, New York, 1950)

#### <번역서>

Calvin, John, 「기독교강요, 下」, 한철하 외 共譯, (생명의말씀사, 1986)

\_\_\_\_\_, 「칼빈성경주석」, 존칼빈성경주석 편찬위원회 譯, (성서교재사, 1993)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編譯,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6)

\_\_\_\_\_, 「존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김기수 共譯, (생명의 말씀사, 1991)

\_\_\_\_\_, 「존칼빈·목회서신강해」, 김동현 譯, (지평서원, 1996)

\_\_\_\_\_, 「존칼빈 에베소서 설교·하」, 김동현 譯, (솔로몬, 1999)

\_\_\_\_\_, 「종교개혁의 정신」, Lewis W. Spitz 編著, 정현철 譯, (풍만, 1990)

#### <편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김혜성, 남정숙 (생명의말씀사, 1983)

「기독교신조사1」, 이장식, (컨콜디아사, 1993)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김의환, (생명의말씀사, 1991)

### ※2차자료

#### <번역서>

Hodge, A.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김종흠 譯,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Holtrop, Philip.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박희석·이길상 共譯,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 Lingle, Walter L. 「세계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이야기」, 이종전 譯, (예루살렘, 1992)
- Martin, Dorothy. 「존낙스의 생애」, 편집부 譯, (생명의 말씀사, 1997)
- Macgregor, Janet G.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최은수 譯, (솔로몬, 1997)
- Reid, Stanford W. 「존낙스의 생애와 사상」, 서영일 譯, (CLC, 1999)
- \_\_\_\_\_,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이훈영 共譯(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 Rogers, Jack. 「장로교신조」, 차종순 譯,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Renwick, A.M.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사」, 홍치모 譯, (생명의 말씀사, 1980)
- Schaff, Philip. 「신조학」, 박일민 譯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譯, (풍만, 1995),
- Witherow, Thomas. 「장로교회의 성경적 근거」, 이국진 譯, (아가페문화사, 1993)

<국문>

-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8)
- 김득룡, 「개혁파교회 정치신강」, (총신대학출판부, 1992)
- 박윤선, 「헌법주석」, (영음사, 1983)
- \_\_\_\_\_,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음사, 1997)
- 박해경, 「성경과 신조」, (아가페문화사, 1991)
- 서요한, 「언약사상사」, (CLC, 1994)
- 오덕교, 「종교개혁사」,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8)
- \_\_\_\_\_, 「장로교회사」,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5)
-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장신대출판부, 1984)
- \_\_\_\_\_,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최병섭, 「개혁파 신조서들의 신학사상」 (새순, 1998)
- 홍치모, 「칼빈과 낙스」, (성광문화사, 1991)

<논문>

- 김득룡 "장로교회 정치사상 연구", 「신학지남」, 제192호,(총신대출판부, 1981)
- 김상식,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신대, 1991
- 김성봉, "교회를 위한 칼빈의 신학", 「교회와 문화」 제4호, (한국성경신학회,2000)
- 김영환, "칼빈의 직분관에 있어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비교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 박종근, "한국장로교회정치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신대, 1987
- 박현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미친 칼빈의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침신대,  
1992
- 신병렬, "갈방의 교회론에 나타난 직제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신대, 1997
- 심창섭,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원은 무엇인가? (1),(2)" 「신학지남」, 제 251호,(총신  
대출판부,1997)
- 양진영, "장로교 정치제도 형성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총신대, 1999
- 이은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내의 감독제와 장로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총신대,  
1987
- 최덕성, "목회자 모델의 역사", 「개혁신학과 교회」, 제3호,(고신대신대원,1993)
- 허순길, "개혁교회 정치와 그 질서" 「개혁신학과 교회」, 창간호,(고신대신대  
원,1991)
- \_\_\_\_\_, "역사적으로 본 개혁주의 (직분)", 「개혁신학과 교회」, 제3호,(고신대신대  
원,1993)

<정기간행물>

- 「목회와 신학」, (두란노, 1989년 12월호).  
(두란노, 1997년 8월호)  
(두란노, 1994년 11월호)

<사전류>

- 「기독교사전」, (기독교문사, 1991)